

고등학교

문학 자습서



정답 및 풀이

1 문학의 기능과 원리

(1) 문학의 본질

① 배를 매며(장석남)

작품 감상 01

» 12~13쪽

01 ③ 02 ④ 03 ② 04 ②

- 01 이 작품은 배를 매는 일에서 깨달은 사랑의 본질을 사색적인 어조로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②, ④ 이 작품에는 묻고 답하는 문답법이나 과거와 현재의 대비,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공감각적 이미지(심상)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작품은 사랑이 시작되고 커 가는 과정의 기쁨과 행복에 대해 노래하고 있으나, 사랑이 끝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노래하고 있지 않다.

- 02 ‘배를 맨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과 인연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 03 이 작품의 화자는 자신에게 찾아온 사랑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기쁨과 설렘, 행복을 느끼며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있다. 특히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 온종일을 떠 있다’는, 운명적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설레는 화자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04 뛰어가 밧줄을 잡는 것은 갑자기 시작된 사랑을 반갑게 맞이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성급하게 시작되는 사랑의 위험성과는 관련이 없다.

활동 연구 문제

» 14~16쪽

01 ② 02 ① 03 ② 04 ②

- 01 이 작품의 화자는 부둣가에서 배를 매면서(①), 그것을 사랑이 시작되고 커 가는 과정에 빚대어 생각하고 있다. 또한 사색적이고 담담한 태도로 사랑의 본질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있다(③, ④, ⑤). 하지만 사랑의 상처에 대해 노래하고 있지는 않다.

- 02 1연에서 ‘뛰어가’는 행위를 통해 사랑을 맞이하는 화자의 반가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아주 천천히’는 조심스럽게 시작되는 사랑을 나타낸다.
③ ‘넋 놓고 앉았다가’는 이어지는 ‘배가 들어와 /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과 함께, 갑자기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넋 놓고 앉았다가’는 사랑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일상의 상황을 의미한다.
④ ‘잔잔한’은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⑤ ‘울렁이며’는 사랑에 빠진 기쁨과 설렘을 나타낸다.

- 03 시의 처음과 끝이 의미와 형태상으로 유사하게 나열되는 구조를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수미상관의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없이’, ‘구름과 빛과 시간’ 등의 어휘가 반복되고 있다.
③ 1연에서 음성 상징어 ‘털썩’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④ 사랑하는 일을 배를 매는 일에 빚대고 있다.
⑤ ‘사랑은(이란) ~ (ㄴ)는 것’이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 04 〈백화〉는 각 시행의 끝에 특정 시구(‘자작나무다’)를 반복 배열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①), 다양한 심상(시각, 청각, 미각)을 활용하여(④) 삶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산골의 향토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있다(③, ⑤). 하지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성난 풀이(이문구)

작품 감상 02

» 18~19쪽

01 ③ 02 ② 03 ① 04 ②

- 01 이 작품은 자연의 본성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통해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수필로, 글쓴이의 내적 갈등의 과정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2 농부는 논밭에 있는 풀 중에서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을 잡풀이라고 여기고 있다.
- 03 글쓴이는 풀독이 오른 경험을 통해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04 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풀독은 자신을 해치려는 존재에게 반발하는 당연한 반응이고, 이러한 자연의 본성을 깨달은 ‘나’는 자연스럽게 풀독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병원을 찾지 않는다. 이는 ‘나’가 인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 만물을 동등하게 바라본 행동이다.

활동 연구 문제

20~22쪽

01 ② 02 ④ 03 ②

- 01 ‘나’가 잡풀을 베면서 오른 풀독은, 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해치려는 존재에 대해 자연스런 본성에 따라 화를 낸 반응이다. 따라서 ‘성난 풀잎’이라는 이 작품의 제목은 풀잎의 자연스런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02 농부는 자신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만을 중심으로 잡풀을 대하는 데 반해, ‘나’는 모든 풀은 동등하다는 입장에서 잡풀을 대한다. 즉 농부는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나’는 자연의 본성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사고한다.
- 03 <성난 풀잎>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대상을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를, <등불>은 사소한 존재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은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25~27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④ 05 ⑤

06 **예시 답안** ㉗는 예기치 않게 갑자기 시작되는 사랑의 속성을, 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랑의 운명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07 ④ 08 ① 09 ① 10 ② 11 ②

12 **예시 답안** 글쓴이는 의문문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설의적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인간 중심적 삶의 태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01 ‘경외감(敬畏感)’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이 작품에서는 사랑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 02 이 작품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역설적 발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작품은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사랑의 본질에 대한 사색을 서정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 03 <보기>는 이별의 과정을 배를 미는 일에 빗대어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으로, <배를 매며>와 <보기>는 둘 다 ‘배’를 사랑하는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04 3연은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그 주변 상황을 그리고 있고, 4연은 이를 사랑에 빗대어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 상황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별의 예감과는 관련이 없다.

- 05 화자는 배를 맬 때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랑도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는다.

오답 풀이

- ① ㉠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인연을 의미한다.
- ② ㉠은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의 인연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 ③ ㉞은 사랑의 인연이 시작되는 곳이자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다.
- ④ ㉞은 사랑을 하면 수용하게 되는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 세계를 의미한다.
- 06 ㉗에서 밧줄은 아무 소리나 말도 없이 갑자기 화자에게 날아오고 있으며, 그 밧줄을 받아 ㉜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㉗와 ㉜에 드러난 사랑의 본질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㉗와 ㉜에 드러난 사랑의 본질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㉗와 ㉜에 드러난 사랑의 본질 중 하나만 서술하였으며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1점

- 07 글쓴이는 자연을 바라보는 두 관점을 절충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인간 중심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풀독이 오른 경험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간 중심 사고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잡풀에 대해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을 지닌 ‘농부’와 이타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관점을 깨달은 ‘나’를 대조하고 있다.
- ③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天地不仁].’,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자연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으며’에서 점강법을 사용하여 자연의 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8 이 작품에서 글쓴이가 깨달은 ‘자연스럽다’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며,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하지 않고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동등하다.’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글쓴이의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잡풀의 입장에서 자신을 해치려는 대상에게 반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병이 났을 때 인위적인 치료 없이 저절로 낫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 ③ 농부가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잡풀을 뽑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태도이다.
- ④ 자연계에서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잡아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매물스럽다고 여기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이다.
- ⑤ 자연은 온갖 생물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편드는 일이 없다.

09 글쓴이는 이타주의적이고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모든 존재는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항상 약한 존재의 편에 서야 한다는 반응은 글쓴이의 관점과 어긋난다.

10 글쓴이는 인간 중심적,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을 비롯한 다른 대상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으므로,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본다.’라는 의미의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

- ③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힘쓴다.
- ④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 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11 ‘성이 난 풀잎’은 자연의 본성에 대한 ‘나’의 이해가 반영된 표현이므로, ‘나’의 이타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 ㉠에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수사법인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잡풀도 느낌이 있고, 풀독은 잡풀이 자신을 해하려는 존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발 작용이며, 자연스럽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조건〉에 맞추어 작가가 비판하는 삶의 태도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작가가 비판하는 삶의 태도는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설의법의 효과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작가가 비판하는 삶의 태도만을 대략적으로 서술하였으나 일부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1점

(2) 문학의 내용과 형식

① 어부사시사(윤선도)

작품 감상 01

» 30~31쪽

01 ③ 02 ⑤ 03 ② 04 ③

05 [예시 답안] 이 작품은 연시조로, 평시조의 기본 형식을 따르면서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종장 사이에 여음구를 삽입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변화를 통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어부의 흥취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1 반어란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와 반대되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 작품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02 이 작품의 화자는 계절마다 펼쳐지는 어촌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그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어부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이나 나라일에 대한 걱정

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나랏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참된 마음’을 의미하는 ‘우국충정’은 화자의 태도와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유유자적(悠悠自適)’은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아감.’을 의미한다.
- ② ‘안분지족(安分知足)’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을 의미한다.
- ③ ‘물아일체(物我一體)’는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
- ④ ‘안빈낙도(安貧樂道)’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을 의미한다.

03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는 배의 출항에서 정박까지의 과정을 보여 주고(④), 중장과 종장 사이의 여음구는 노 젓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를 나타낸 것으로, 여음구에 계절의 특징은 드러나 있지 않다. 이 작품에 쓰인 여음구는 시상 전개에 사실감과(①) 통일감을 부여하며(⑤) 흥취를 북돋우는 역할을 한다(③).

04 <동사 4>는 눈 덮인 강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춘사 1>에는 아침이 되면서 안개가 걷히고 해가 비치는 풍경이 드러나 있다.
- ② <동사 4>의 ‘선계ㄴ가 불계ㄴ가’는 눈 내린 어촌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 ④ <하사 2>의 초장으로 보아, 화자는 풍족한 먹거리가 아니라 소박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이 작품의 화자에게 낚시는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풍류의 대상이다.

05 이 작품은 일반적인 평시조와 달리 여음구가 있으며, 평시조를 여러 개 나열한 연시조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러한 형식상 특징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채점 기준	배점
연시조의 형식, 여음구의 사용 등 형식상 특징과 그 효과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형식상 특징 중 한 가지만 밝혀 그 효과를 서술한 경우	4점
형식상 특징 중 한 가지만 서술하고 효과는 서술하지 않은 경우	2점

활동 연구 문제

» 32~34쪽

01 ③ 02 ④ 03 ② 04 ②

- 01** ‘청약랍’은 푸른 갈대로 만든 샷갯을, ‘녹사의’는 짙이나 풀 따위로 엮어 만든 재래식 비옷을 일컫는 말로, 둘 다 여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02** 화자는 현재 머물고 있는 자연의 공간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경치의 아름다움과 어부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다. 이로 보아 ‘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에는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심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03** 이 작품에 그려진 자연은 풍류의 대상이다. 삶의 교훈을 주는 대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 04** <청노루>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②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박태원)

작품 감상 02

» 36~43쪽

01 ④ 02 구보 03 ⑤ 04 ④ 05 ③
 06 ② 07 ② 08 **예시 답안** 단장은 산책을, 공책은 글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보가 거리를 산책하며 관찰한 것을 소재로 글을 쓰는 소설가임을 알려 준다. 09 ③
 10 ① 11 **예시 답안** 구보는 여자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채 여자에 대해 이런저런 공상을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12 ② 13 ⑤ 14 ⑤

- 01** 이 작품은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의식의 흐름 기법에 따라 주인공의 행적과 그에 따른 주인공의 생각을 인과성 없이 서술하고 있다.
- 02** 자전적 소설이란 작가가 자신의 생애를 소설화한 것을 말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 이름인 ‘구보’는 작가 박태원의 호로, 작가가 소설가인 자신을 소재로 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03 (가)~(다)에서 구보는 종로 네거리를 걷다가 자신의 시력을 걱정하며 안과 의사를 찾아갔던 때를 회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과 의사가 환자를 단지 돈으로만 보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04 (라)의 내용만으로 젊은 부부가 물질적 행복보다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지는 알 수 없다. 구보는 화신 상회 승강기 앞에서 오찬을 즐기러 가는 젊은 부부 내외가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처음에는 그들을 업신여기려 하다가 새로운 기쁨을 가진 그들을 부러워하며 축복해 주려 한다.

05 (아), (자)의 내용으로 보아, 구보가 교외를 잘 나가지 않는 이유는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구보가 전에는 고독을 사랑한다고 여긴 적도 있지만, 그것은 고독을 이겨 내지 못한 자신에 대해 위로였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06 이 작품은 (사)의 ‘구보는, 우선,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와 같이 현재형 어미를 자주 사용하여 현장감을 드러내고(ㄱ), (아)의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용을 받쳐 댄 창을 본다.’와 같이 잦은 쉼표의 사용으로 인물의 내면 의식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ㄴ).

07 (마)~(차)는 ‘(화신 상회) - 안전지대-전차 안’으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즉 여정에 따라 주인공이 관찰하고 생각한 것을 서술하고 있다.

08 ‘단장’은 ‘짧은 지팡이’로 구보가 경성을 산책(배회)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 ‘공책’은 산책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메모하는 도구이다.

채점 기준	배점
단장과 공책의 의미를 구보의 직업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단장과 공책의 의미를 서술하였으나, 그것을 직업과 관련지어 서술한 내용이 미흡한 경우	3점
단장과 공책의 의미, 직업 중 한 가지만 밝힌 경우	1점

09 구보는 전차에서 만난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걱정하고, 그 여자가 자기를 알아보았을지, 알아보았다면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여자에게 알은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등 많은 생각을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를 통해 구보의 성격이 소심하고 우유부

단하며 관념적이고 주변머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이 작품은 만연체 문장을 사용하여 구보의 사유 과정을 인과적 연관성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11 ㉠의 앞부분을 보면 구보는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하며,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하는 것’을 ‘감정의 모독’이고, ‘일종의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여자에 대한 구보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5점
여자에 대한 구보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3점
‘여자에 대해 마음대로 공상했으므로’와 같이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점

12 구보는 행복을 찾기를 원하지만, 전차에서 만난 여자와 관련해서도 망설이고 후회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는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구보는 행복이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 버렸는지도 모른다고 하며, 여자를 알은체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③ 구보가 행복을 찾고 싶어 하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으나, 노력한다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부분은 없다.

④ 구보는 일상의 행복을 찾기 위해 경성 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좋은 소설을 쓰겠다고 집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구보는 일상의 행복과 소설 쓰기 모두에서 행복을 찾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하며 행복을 찾고 싶어 하고 있다.

13 (더)에서 구보는 맞선을 본 후 여자에게 호감을 가졌지만 여자에게서 먼저 연락 오기만을 살피다가 끝나 버린 인연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 집에 구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되돌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14 이 작품에서는 쉼표를 자주 사용하여 1930년대 일제 강점하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구보의 방향과 고뇌를 세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구보가 그러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01 ②

02 ④

03 ①

04 ①

- 01 구보는 전차 안에서 만난 여자를 결혼질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심하고 소극적이며 자신감 없는 구보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02 구보는 여자를 한 번 본 이후로 일 년 만에 전차에서 우연히 만난다. 따라서 기다렸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3 구보가 서울 거리를 배회하는 이유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이다.
- 04 이 작품은 호흡이 긴 만연체 문장을 사용하여 구보의 갈등과 고뇌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49~51쪽

01 ④

02 ④

03 ①

04 ④

- 05 **예시 답안**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는 출항부터 정박까지의 과정을 나타내어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준다. 중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는 노 젓는 소리와 노 저을 때 외치는 소리를 나타내는데, 이는 작품에 사실감을 더하고 흥겨움을 북돋워 준다.
- 06 ④ 07 ⑤ 08 ② 09 ③ 10 ③
- 11 **예시 답안** 구보와 달리 갈 곳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전차에 모두 오르자, 혼자 남은 구보는 외로움과 애달픔을 느끼고 있다.

- 01 이 작품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전이되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 02 <춘사 1>의 ‘압개에 안개 짓고 뒤희회 히 비췄다’와 <동사 4>의 ‘압희는 만경류리 뒤희는 천텃옥산’은 대구법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춘사 1>에서는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② <하사 2>에서는 말을 건네는 어조가 드러나지만 묻고 답하는 형식은 아니다.

③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표현을 설의법이라고 하는데, <추사 2>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동사 4>에서는 ‘인간’으로 표현된 속세와 ‘만경류리, 천텃옥산’ 등의 자연이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하사 2>에는 대조적으로 쓰인 시어가 없다.

03 ‘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로 보아 화자는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 이 작품에서의 ‘어부’는 생계를 이어 가는 어부가 아니라, 풍류를 즐기며 사는 어부이다. 따라서 ㉔에는 생계를 이어 가는 어부의 모습이 아니라, 한가롭게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㉔에는 안개가 걷히고 해가 비치고 온갖 꽃이 피어나는 강촌의 봄 풍경이 제시되어 있다.

② ‘안분지족’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아는 삶의 태도이다. ㉔의 소박한 음식을 준비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③ ㉔에는 흰 갈매기와 화자가 한데 어울리는 물아일체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⑤ ㉔에서는 눈 덮인 어촌의 모습을 신선이나 부처의 세계인 듯하다며 예찬하고 있다.

05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는 각 수별로 다른데 출항부터 정박까지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는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가 반복되는데, 이는 노 젓는 소리와 노 저을 때 외치는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이다.

채점 기준	배점
각각의 여음구의 특징과 효과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각각의 여음구의 특징과 효과를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다소 미흡한 경우	4점
여음구를 두 가지로 나누지 않았으며, 효과와 특징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점

06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서술자와 초점 주체(보는 자)가 분리되어 있는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으나, 서술의 초

점이 구보에게 맞추어져서 서술자가 구보의 시점에 동화된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다.

07 <보기>는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를 노래한 작품으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탐색의 과정이 드러나 있다. ‘하늘’은 화자에게 현실 상황을 일깨워 주는 순수한 존재이며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구보가 행복을 찾는 일을 포기할 때가 있었는지, 그리고 구보에게 어머니가 새로운 의지가 생기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08 이 작품에서는 쉼표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긴 문장을 끊어 리듬감을 주는 동시에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 작품은 특별한 사건이나 인과 관계 없이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므로, 잦은 쉼표의 사용이 사건의 인과 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09 이 작품은 구보의 관점에서 내용이 서술되고 있는데, (라)에서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앓을 게다.’라고 한 것 역시 구보의 추측일 뿐이다. 따라서 여자가 구보를 보고 누군지 바로 알아차렸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0 ㉢을 통해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고독한 상황에 놓인 자신을 스스로 위안하는 인물의 심리를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구보가 밖으로 나오며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설레고 있는 것이 아니다.
- ② ㉡은 갈 곳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느 곳으로도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자식의 평판이 나빠지기를 바라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을 구보가 추측한 것이다.
- ⑤ ㉤은 여자가 자신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이므로, 절망과는 거리가 멀다.

11 구보는 안전지대 위에서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해 보고, 그들이 모두 전차에 오른 후

혼자 남아 외로움과 애달픔을 느끼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안전지대에 있는 구보가 떠올린 생각을 <조건>에 맞추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안전지대에 있는 구보가 떠올린 생각을 <조건>에 맞추어 서술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경우	3점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구보의 심정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1점



대단원 평가 문제

56~60쪽

-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④
- 06** ① **07** **예시 답안** ‘성이 난 풀잎’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08** ② **09** ③ **10** ②
- 11** **예시 답안**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지만 (마)에서는 서술자가 구보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여자에 대한 구보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 12** **예시 답안** 화자가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절망에 빠지면서도 또다시 기다리듯이, 우리의 삶도 기쁨과 절망을 반복하면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 13** **예시 답안** 이 작품에서는 기쁨과 절망이 교차하는 상황과 그에 대한 화자의 복합적인 심경을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섬세하고 아름답게 다듬은 시어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 01** (가)에서는 배를 매는 과정을 통해 사랑의 본질에 대해 사색하고 있고, (다)에서는 풀독이 오른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의 본성에 대해 사색하고 있다.
- 02** (나)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어부 생활의 여유와 흥취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으로, 현실 개혁에 대한 화자의 열망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03** (가)는 배를 매는 과정이나 배를 맨 후의 주변 환경을, (나)는 강촌의 사계를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감각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무심한 백구’에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됐다고 볼 수 있지만, (가)에는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부분이 없다.

- ② (가)와 (나) 모두 감탄사는 사용하지 않았다.
 ④ (가)는 답답한 어조로, (나)는 영탄적 어조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에는 점층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나)에도 점강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04 (가)는 배를 매는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추상적 대상으로 사고를 확장시키고 있고, <보기>는 말을 빌려 탄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소유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으로 사고를 확장시키고 있다.

05 작물과 잡풀을 구분하는 것은 농부의 입장에서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따지기 때문이지, 풀의 본성이 원래부터 다르기 때문은 아니다.

06 ‘청약립’은 ‘푸른 갈대로 만든 샷갯’을 의미하며, 자연과 어울려 사는 화자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소재로 사용되었다.

07 글쓴이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비판하기 위해 ‘풀이 성이 났다’고 표현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글을 쓴 의도를 고려하여 ㉠의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글을 쓴 의도를 고려하여 ㉠의 의미를 서술하였으나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3점
글을 쓴 의도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의 표면적 의미만을 서술한 경우	1점

08 이 작품은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뚜렷한 사건 없이 구보의 내면 의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09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하며 이들과 관련된 일화들을 특별한 줄거리나 순서 없이 나열하는 것을 삽화식 구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다양한 등장인물이나 그와 관련된 사건이 등장하지 않으며, 오직 주인공 구보의 내면을 의식의 흐름대로 보여 주고 있으므로 삽화식 구성을 취한다고 볼 수 없다.

10 (가)에서 동대문행 차를 탄 구보는 어디로 가느냐는 차장의 질문에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답을 하지 못한다. (다)

에서 ‘창경원에라도 갈까’라며 생각만 했을 뿐 최종 목적이 창경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마)에서는 서술자가 주인공인 구보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마치 구보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시점상의 특징을 바르게 밝히고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5점
시점상의 특징은 바르게 밝혔으나 그 효과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 경우	3점
시점상의 특징과 효과 중 한 가지만 대략적으로 서술한 경우	1점

12 수행 평가 풀이 | 난이도 ★★★ |

평가 요소 문학의 윤리적 기능

채점 기준	배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문학의 윤리적 기능 측면에서 작품에 대한 감상을 서술한 경우	6점
문학의 윤리적 기능 측면에서 작품에 대한 감상을 서술했으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4점
문학의 윤리적 기능 측면에서 작품에 대한 감상을 대략적으로만 서술하고,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시킨 경우	2점

13 수행 평가 풀이 | 난이도 ★★★ |

평가 요소 문학의 정서적·미적 기능

채점 기준	배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문학의 정서적·미적 기능의 측면에서 작품에 대한 감상을 서술한 경우	6점
문학의 정서적·미적 기능의 측면에서 작품에 대한 감상을 서술했으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4점
문학의 정서적·미적 기능의 측면에서 작품에 대한 감상을 대략적으로 서술하고,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시킨 경우	2점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문학 감상의 맥락

① 이생규장전(김시습)

작품 감상 01

» 64~69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②	05 ③
06 ③	07 ⑤	08 ④	09 ②	10 ④
11 ⑤	12 ④			

- 01 (가)에는 ‘신축년’과 같이 구체적 시기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오며, ‘송도’나 ‘개성’, ‘복주’ 등과 같이 당시의 구체적인 지명도 나오고 있다. 이는 작품에 사실감, 현장감 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 02 이 작품의 역사적 배경은 고려 말 홍건적의 난이며, 이로 인해 주인공 ‘최 씨’는 목숨을 잃게 되고 백성들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한 채 달아나게 되었다.
- 03 (가), (나)에는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 이별하게 된 ‘최 씨’와 ‘이생’의 고난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호귀(虎鬼)야, 나를 죽여 ~ 님의 짝이 되겠느냐.”에서 절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최 씨’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이경(二更)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라는 구절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것을 암시한다.
- ③ (나)의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에서 죽은 ‘최 씨’가 ‘이생’ 앞에 다시 나타나는 비현실적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⑤ (가)에서 홍건적의 난으로 ‘이생’과 ‘최 씨’가 이별하게 된 일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되고 있다.
- 04 ㉠은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지방으로 보낸 내용이고, ㉡은 ‘최 씨’의 부모가 ‘최 씨’의 청에 의해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는 내용이다. 특히 ㉠에서는 사랑을 위해서 부모를 설득하는 ‘최 씨’의 적극적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 05 ㉢에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낸 ‘이생’의 허무하고 덧없는 심정이 담겨 있다. ‘운우지정’은 ‘남녀 간의 어울리는 정’을 의미하는 한자 성어이므로 ㉢과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인생과 영화의 덧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서기 731년에 노생이 한단이란 곳에서 여용의 베개를 빌려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80년 동안 부귀영화를 다 누렸으나 깨어 보니 메조로 밥을 짓는 동안이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 ②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이다. 중국 당나라의 순우분이 술에 취하여 왜나무의 남쪽으로 뻗은 가지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괴안국의 부마가 되어 남가군을 다스리며 20년 동안 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 ④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 ‘황량일취몽(黃粱一炊夢)’과 같은 말로, 인생이 덧없고 영화도 부질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이다. 당나라 소년 노생이 도사인 여용의 베개를 빌려 베고 잠이 들어 부귀영화를 누리며 80세까지 산 꿈을 꾸었는데, 깨어 보니 아까 주인이 짓던 조밥이 채 익지 않았더라는 데서 유래한다.
- 06 ‘전기적(傳奇的)’이라는 말은 기이하여 세상에 전할 만한 것을 말하는데, 주인공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비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 작품에서 죽은 ‘최 씨’가 다시 ‘이생’과 만나 사랑을 이어 가는 부분은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전기적 성격이 드러난다.
- 07 ‘최 씨’는 정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고 죽음을 택하고 있다.
- 08 (다)는 죽은 ‘최 씨’가 ‘이생’ 앞에 다시 나타나 홍건적의 난으로 죽게 되었던 사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이생’에 대한 ‘최 씨’의 원망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③ ‘최 씨’는 ‘이생’과 헤어진 자신의 처지를 ‘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에 빗대고 있다.
- ⑤ ‘추연의 피리’, ‘천녀의 혼’ 등의 고사를 인용하여 ‘이생’과 다시 만나서 부부의 연을 계속 맺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09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라는 ‘최 씨’의 말로 보아 ‘이생’과 ‘최 씨’는 헤어져야 하는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운명을 거부하는 세계관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10 ㉠에서 ‘최 씨’는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슬픈 이별이 닥쳐”온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최 씨’와 ‘이생’은 지금까지 세 번의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고 두 번의 이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처음 이별은 이생의 아버지로 인해 두 사람이 떨어지게 되었던 일이고, 두 번째 이별은 전쟁 상황에서 ‘최 씨’가 목숨을 잃었던 것을 의미한다.

11 ㉡은 ‘이생’이 느낀 부끄러움을 가리키는데, 앞뒤 맥락으로 보아 ‘이생’이 홍건적의 난 때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았으며 부모님의 유골도 챙기지 못했던 일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A]는 홍건적으로 난으로 죽음을 맞게 된 ‘최 씨’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과 ‘이생’과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된 상황에서의 슬픈 마음을 노래한 시이다. 여기서 ‘무산 선녀’는 ‘최 씨’를 가리키는 시어이다.

활동 연구 문제

70~72쪽

01 ④

02 ①

01 <보기>는 부모의 정식 허락 없이 인연을 맺은 것에 대해 걱정하는 ‘이생’에게 ‘최 씨’가 자신감을 주는 부분이다. 이로 보아 ‘최 씨’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대범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02 이 작품이나 <최척전> 모두 결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열린 결말이라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③ <이생규장전>의 결말에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듣고 애처로워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다.

④ <최척전>에서는 주인공 ‘최척’의 자식들이 등장한다.
⑤ <최척전>에서는 ‘최척’의 아내 ‘옥영’이 전쟁 중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후에 정렬부인으로 봉해진다.

② 쉽게 씌어진 시(윤동주)

작품 감상 02

74~75쪽

01 ③

02 · 시간적 배경: 밤, · 공간적 배경: 육첩방

03 ⑤

04 ③

05 ⑤

01 이 작품은 일관되게 독백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성찰과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밤비’, ‘침전’ 등의 시어에서 하강의 이미지가 드러나 있지만, 이것이 화자의 부정적인 미래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다’라는 평서형 종결 어미만 2회 사용되었을 뿐, 동일한 서술어는 반복되지 않고 있다.

02 이 작품의 배경은 1연에 드러난다. ‘밤비’에서 시간적 배경을, ‘육첩방’에서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

03 <보기>에 의하면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4 이 작품은 어두운 현실을 인식한 [A]의 내용을 [B]에서 변주하고 반복하여 일제 강점기라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재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5~7연에서 화자의 자기 반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B]에서는 [A]와 달리 미래에 대한 희망적 의지라는 내적인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05 이 작품에는 무기력하고 회의적인 현실적 자아와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내면적 자아가 등장하고 있다. ㉠, ㉢, ㉤는 현실적 자아에 해당하고, ㉡, ㉣는 내면적 자아에 해당한다.

01 ②

02 ⑤

03 ③

01 ‘대학 노트’, ‘늙은 교수의 강의’, ‘육첩방은 남의 나라’, ‘보내 주신 학비 봉투’ 등으로 보아 화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이며 시인임을 알 수 있다. ‘최후의 악수’는 화자의 두 자아가 화해하는 모습으로,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

02 화자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에서 시인으로서 시를 쓰는 것이 슬픈 천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시를 쓰는 행위가 어두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03 <파랑새>에서 ‘푸른색’은 자유와 이상의 상징으로 쓰였으며 화자의 젊음과는 상관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푸른 노래 / 푸른 울음’에는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을 갈망하는 마음과 나병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삶에 대한 한스러운 마음이 결합되어 있다.
- ④ ‘~리’라는 종결 어미를 통해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81~83쪽

01 ①

02 ②

03 ⑤

04 예시 답안 이미

자신의 이름이 저승의 명부에 올랐기 때문이다. 운명을 거스르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생’에게도 누를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05 ③

06 ⑤

07 ④

08 ①

09 ④

10 ④

11 예시 답안

①의 처음 제시된 ‘나’는 내면적 자아에 해당하고, 두 번째 제시된 ‘나’는 현실적 자아에 해당한다. 두 자아가 악수하며 화해하는 모습은 화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고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1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전달하고 있다.

02 ‘이생’과 ‘최 씨’는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듯이 보였으나 결국 ‘최 씨’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다고 하며 영원한 이별을 고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언젠가는 저승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생사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보기>는 <만복사저포기>의 일부로, 주인공 ‘양생’과 ‘여인’이 헤어지는 결말 부분에 해당한다. 두 작품의 여자 주인공은 목숨을 잃은 상태에서 남자 주인공과 사랑을 하는 공통점을 보여 준다.

04 ‘이생’이 ‘최 씨’에게 인간 세상의 삶을 더 지속할 것을 청하지만 ‘최 씨’는 ‘이생’의 청을 거절한다. 그 이유는 ‘최 씨’의 대답인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를 통해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최 씨’가 ‘이생’의 청을 거절한 이유 두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최 씨’가 ‘이생’의 청을 거절한 이유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최 씨’가 ‘이생’의 청을 거절한 이유를 한 가지만 서술하면서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1점

05 [A]는 홍건적의 난으로 억울하게 죽은 ‘최 씨’가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면서 ‘이생’과의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슬픈 마음을 노래한 시이다. 그러나 이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06 ①은 비현실적인 사건, 즉 전기적인 성격의 사건에 해당한다. ⑤의 내용은 ‘허생’의 궁핍한 생활을 보여 주는 부분이므로 비현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장님이었던 ‘심 봉사’가 ‘심청’의 앞에서 갑자기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다.

② ‘박생’이 잠이 들었다가 바닷속의 한 섬으로 이동한 장면이다.

③ ‘송상’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노승’과 두 명의 ‘부인’, 여섯 ‘낭자’, 누대 궁궐이 모두 사라지고 자신은 작은 암자에 앉아 있는 장면이다.

④ ‘도승’이 ‘옹가’를 혼내 주기 위해 부적으로 허수아비를 ‘옹고집’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꾸는 장면이다.

- 07 ㉠에는 ‘최 씨’가 떠난 후에 깊은 슬픔에 빠진 ‘이생’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는 ‘슬픔과 원한이 뼈에 사무친다’라는 의미의 ‘각골통한’이 어울린다.

오답 풀이

- ①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라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른다.
- ② ‘자신의 분수를 잊고 남을 흉내 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이다.
- ③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라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되는 것임을 이르는 말이다.
- ⑤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한다’라는 뜻이다.
- 08 이 작품의 화자는 암울한 현실에 상실감, 비애, 무기력함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분노의 감정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 09 이 작품의 1~4연에서는 조국의 어두운 현실을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5~7연에서는 이를 통해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기력한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8~10연에서는 화자의 인식 전환이 일어나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10 [A]는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에 해당하는 구절로, 화자의 현실 인식이 나타난다. [B]는 [A]를 활용하여 반복한 구절로, 어순이나 어미의 변화를 통해 화자가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11 ㉠의 처음에 제시된 ‘나’는 손을 내밀어 화해를 시도하는 내면적 자아에 해당하고, 두 번째에 제시된 ‘나’는 그 손을 붙잡아야 하는 소극적인 현실적 자아에 해당한다. 분열되었던 두 자아가 악수하는 것은 화해와 화합을 의미하며 화자가 적극적인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지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채점 기준	배점
두 명의 ‘나’가 가리키는 자아를 제시하고 ㉠의 의미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두 명의 ‘나’가 가리키는 자아를 제시하였으나 ㉠의 의미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의 의미만 모호하게 서술한 경우	1점

(2) 문학 활동의 이해

1 스노우맨(서유미)

작품 감상 01

86~91쪽

- 01 ③ 02 **예시 답안** 시간의 흐름이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눈에 보이듯이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남자가 느끼는 부담감을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03 ③ 04 ②
- 05 ⑤ 06 ④ 07 ① 08 ③ 09 ④

- 01 이 작품의 시제는 과거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빨리 안 오고 뭐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느 새 두 시였다.’와 같이 짧고 간결한 문장이 나타난다.
- ②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과 심리를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 ④ (가)에서 차가운 눈을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와 ‘숨이 불’에 빗대고 있다.
- ⑤ 간밤에 일 미터가 넘는 눈이 내리고, 그 눈을 삼으로 파헤치며 출근을 한다는 설정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은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한다.
- 02 ㉠은 추상적 개념인 ‘시간의 흐름’이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는 표현을 통해 시각적으로 바뀌어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시간의 흐름이 남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독자가 생생하게 느끼도록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그 효과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나 그 효과를 모두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점

- 03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남자’에게 눈은 시련이다. 출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남자’에게 일 미터가 넘게 내린 눈은 출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한다. ‘유 대리’는 눈에 파묻히고 ‘남자’ 역시 그 옆에서 잠드는 상황은 눈의 부정적인 속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 04 ‘남자’는 폭설로 인해 중국집이 영업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집에서 누군가 전화를 받자 당황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05 ‘남자’는 ‘배달원’이 눈을 헤치고 오는 모습을 보고 거짓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06 ㉠에서 ‘남자’는 직장과 집에서 온 연락을 모두 피하면서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 이를 통해 ‘부장’ 및 ‘과장’과 ‘아내’는 ‘남자’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이고 ‘남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회사에서 연락을 한 ‘과장’과 ‘부장’은 ‘남자’에게 늦은 출근을 질책하는 상사이다.

③ ‘남자’가 ‘아내’의 연락을 피한 것은 ‘아내’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기가 곤란하고 힘들었기 때문이다.

07 이 작품은 졸음 때문에 서서히 눈이 감기는 ‘남자’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사건의 결말을 명확하게 끝맺지 않는 것을 ‘열린 결말’이라고 한다.

08 ‘남자’가 발견한 ‘양복 차림의 사람’은 ‘유 대리’로, 회사에 출근을 하기 위해 눈을 파헤치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유 대리’는 경쟁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도태된 인물로, 현대 사회의 경쟁 체제 속에서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한 존재를 상징한다.

09 이 작품에 나오는 갈등은 ‘남자’와 ‘남자’를 둘러싼 ‘세계’ 사이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남자’는 어떻게 부정적인 ‘세계’를 극복해야 할지 잘 모르며, 소극적인 태도로 막연한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남자’는 ‘세계’와 적절히 대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남자’는 원래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③ ‘남자’와 ‘유 대리’의 모습은 ‘세계’에 맞서 싸웠다가 보다는 ‘세계’와의 대립에서 순응하고 굴복한 것이다.

활동 연구 문제

92~94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③

01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남자’는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 의무감 등을 느끼며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 ‘남자’가 회사의 불합리한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유 대리’가 눈 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볼 때, 무리해서 회사에 가려다가 결국에는 지쳐 쓰러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02 이 작품에 등장하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부정적인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그 눈사람의 웃음을 따라 하던 ‘남자’는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게 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의 제목인 ‘스노우맨’은 경쟁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억지웃음을 지으며 살아야 하는 현대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3 이 작품은 폭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눈을 파헤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을 통해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경쟁을 강요하는 ‘과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작품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04 이 작품의 결말은 ‘남자’가 ‘유 대리’를 발견하고 구하려다가 자신도 지쳐 조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사건이 명확하게 결론 나지 않는, 여운을 주는 결말로 인해 독자들은 이후 상황을 궁금해하며 추측하게 된다.

②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황인숙)

작품 감상 02

96~97쪽

01 ①

02 ②

03 ⑤

01 ‘달빛’은 야생으로 나간 고양이의 잠자리를 비추어서 서정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소재이다. ‘가시덤

불, 어두운 별판, 바람, 찬비'는 자유를 찾아 떠난 고양이
이가 처한 현실적인 고난, 시련에 해당한다.

02 이 작품에서 화자는 고양이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의미하는 '뒷마루, 사기그릇'
등과 자유로운 야생적인 삶을 드러내는 '가시덤불, 너
른 별판' 등의 시어가 대조되고 있다.
- ③ 고양이의 삶을 통해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화자의 소
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리라'와 '-겠지'를 반복하여 화자의 소망 실현의 의
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잘잘, 사뿐사뿐'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고양
이를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03 '뒷마루'는 집에서의 안락한 삶을, '날가리'는 야생에서
의 자유로운 삶을 의미한다.

활동 연구 문제

» 98~100쪽

01 ④ **02** ③ **03** ④

01 이 작품에서 화자는 고양이를 통해 안락하고 편안한 삶
을 거부하고 시련 속에서도 이상을 지향하며 자유롭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02 이 작품에는 화자가 생각하는 고양이의 긍정적·부정적
모습과 야생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
다. 이런 고양이의 모습과 고양이가 어떤 시간대를 좋아
하는지는 서로 관련이 없다.

03 이 작품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소망을 고양이를 통해 드
러내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다른 대상에게 말을 건네
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고양이인 화자 '나'
가 '당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정적 상황은 두 작품에 모두 드러난다.
- ② 이 작품에서 화자인 '나'는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가
되고 싶은 존재이다.

③ 이 작품에서 고양이는 배가 고프면 참새를 때를 덮칠
것이라고 하였으나, <보기>의 고양이는 '당신' 앞에서
반짝거리기 위해 새조롱에 달려들 것이라고 하였다.



소단원 평가 문제

» 103~105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③ **05** ⑤
06 ③ **07** 예시 답안 '유 대리'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회
사에 출근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눈 속에 묻혔다. 이를 통해
작가는 현실의 억압에 의해 좌절하고 희생되는 현대인의 모습과
경쟁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08** ⑤ **09** ⑤ **10** ④

01 눈을 파헤치는 '남자'나 눈 속에 파묻힌 '유 대리'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
에 있다.
- ② 개인과 사회 사이의 갈등이 주된 문제로 제시되고 있
다.
- ③ 이 작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다.
- ④ 이 작품은 '남자'가 회사를 가기 위해 길에 쌓인 눈을
파헤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간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02 해가 기울고 주위가 어둑어둑해지는 배경은 암울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03 '남자'는 편의점 앞에 서 있는 눈사람의 표정을 흉내 내
며 비현실적인 상황을 벗어나 보려 하지만 상처만 입을
뿐이다.

04 '남자'가 휴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직장과 집에서의
연락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남자의 의도와 결
과가 일치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남자'는 의지를 가지고 눈을 부릅떴지만 너무 지쳐서
시야가 뭉개지고 있다.

⑤ ‘남자’는 휴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말을 하지 못한다.

05 ㉠은 지친 주인공이 쉬고 싶어 하는 곳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② ㉠을 재앙과 관련지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시각과 관련이 있다.
- ③ ㉠을 펴냄과 동시에 다시 정체를 몰을 음악 소리가 들려 오면서 독자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④ ㉠은 ‘유 대리’가 그러쥐고 있는 눈을 가리키는데, 이는 그가 쓰러지기 전까지 눈을 파헤쳤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06 나아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한자 성어는 ‘진퇴유곡’이다.

오답 풀이

- ① 고민거리 때문에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뜻한다.
- ②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 ④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다.
- 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다.

07 모범 사원이었던 ‘유 대리’가 눈 속에 파묻힌 채로 발견된 것은 그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무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잠시 앞서나갔지만, 결국 거대한 경쟁 사회에서 소모적으로 희생되고 좌절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뜻한다.

채점 기준	배점
‘유 대리’의 상황과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유 대리’의 상황과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바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3점
‘유 대리’의 상황과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바 중 하나만 서술하면서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1점

08 이 작품에는 화자가 되고 싶은 대상인 고양이의 속성이 잘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 ③ ‘짚단 냄새 훈훈하겠지.’라는 구절을 통해 후각적 심

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화자의 추측에 해당한다.

09 <보기>는 봄을 고양이에게 빗대어 봄의 생동감과 생명력을 드러낸 작품으로, ‘꽃가루와 같이’, ‘금방울과 같이’ 등의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오답 풀이

- ③ 이 작품과 <보기>에는 모두 일정한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 이 작품에는 ‘(나는) -지 않으리라’, ‘-는 -겠지’ 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와 같이’, ‘-도다’, ‘-아라’ 등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 ④ <보기>의 배경은 봄이지만 이 작품은 특정한 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다.

10 <보기>는 가슴에 창이라도 뚫어 그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다는 것을 노래한 사실시조로, 특별하게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의 ‘가시덤불 속을 누벼 누벼’, ‘들쥐와 뛰어놀리라’ 등이나 <보기>의 ‘똥닥 박아’ 등에서 동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 ② 이 작품의 ‘고양이’나 <보기>의 ‘창’ 모두 일상의 사물들이다.
- ③ <보기>의 사실시조에서 가슴에 창을 뚫는다는 발상과 이 작품에서 고양이를 통해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발상 모두 참신하다고 볼 수 있다.
- ⑤ 이 작품에서는 ‘태어나리라’를, <보기>에서는 ‘창 내 고자’를 반복하고 있다.

(3) 문학의 인접 분야와 매체

1 저녁에(김광섭)

작품 감상 01

108~109쪽

01 ④ 02 ⑤ 03 ⑤ 04 예시 답안 화가는 가난과 고독, 병마로 지친 가운데 <저녁에>를 통해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유대감과 존재의 의미를 점과 선을 이용해 그림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 01 이 작품의 1연은 ‘나’와 별의 운명적 만남이, 2연에는 ‘나’와 별의 이별이 제시되어 있다. 2연의 ‘밤이 깊을수록’은 단순한 어둠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밤이 깊어 새벽이 되고 밝아지면 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 어둠이 오면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연에서 ‘사라진다’는 어떤 존재이든 피할 수 없는 운명적 이별과 소멸을 내포하고 있다.
- 02 이 작품에는 어둠과 밝음의 시각적 심상만이 사용되고 있다.
- 03 이 작품에서 화자는 ‘별’을 ‘너’라고 부르며 ‘나’와 소중한 인연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 역시 ‘그’에게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 04 화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녁에>라는 작품을 읽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자신도 누군가와 소중한 인연을 맺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를 모티프로 그림을 그린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화가의 처지와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그림을 그린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화가의 처지나 작품의 내용 중 하나만 언급한 경우	3점
<저녁에>를 읽고 그림을 그렸다는 식의 대략적인 서술을 한 경우	1점

활동 연구 문제

110~112쪽

01 ① 02 ⑤ 03 ②

- 01 2연의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라는 구절로 보아 밤이 깊어가면서 ‘나’가 사라지는 장면이 적절하다.
- 02 이 작품을 모티프로 탄생한 김환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버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극복하고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중하고 그리운 사람들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부제가 적절하다.
- 03 이 작품의 화자는 인터넷을 하면서 대상과의 인연을 확인하고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좀처럼 대상과 가까워지지 못한다. 이는 현대인들이 삶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2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원작, 박진숙 극본)

작품 감상 02

114~119쪽

01 ⑤ 02 ② 03 ⑤ 04 ④ 05 ①
06 클로즈업 07 ① 08 ⑤

- 01 이 작품은 소설을 드라마 대본으로 각색한 것으로, 무대 안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희곡에 비해 시·공간적 제약이 적다.

오답 풀이

- ① ‘S# 12 난장이네 집 마당(밤)’을 통해 장면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클로즈업’과 같은 용어가 제시되어 있다.
- ④ 괄호 안 지문을 통해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등을 지시하고 있다.

02 둘째 아들인 ‘영호’는 가난한 자신의 처지에 불만이 많고 거친 언행을 일삼는 인물이다.

오답 풀이

- ① ‘어머니’가 ‘통장’의 방문에 놀란 것으로 보아 반가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통장’의 강압적인 태도를 찾을 수 없다.
- ④ (가)로 보아 ‘어머니’는 ‘아버지’를 존중하고 대우한다.
- ⑤ ‘영호’가 (나)에서 “잘됐네, ~ 이거네. 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반어에 해당한다.

03 ‘난장이’는 작품에서 ‘아버지’에 해당하는 인물로, 신체적 왜소함을 통해 사회적 왜소함을 나타낸 표현이다. 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노동자, 빈민 계층)을 상징한다.

04 ‘새벽’은 ‘영희’가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시간으로, 날이 밝아져도 ‘난장이’ 가족의 고통에는 변화가 없음을 나타낸다.

05 ‘조장’의 옷핀은 공장을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졸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억압이자 폭력으로 볼 수 있다.

06 옷핀에 찢리는 ‘영희’의 모습을 클로즈업함으로써 이를 보는 사람들은 ‘영희’의 고통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07 <보기>에서 ‘영호’는 ‘영수’의 말을 듣고 형이 시키는 대로 자리를 떠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 극심한 갈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② ‘영수’는 마지막까지 ‘어머니’와 ‘영희’를 ‘영호’에게 맡기며 챙기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③ 이 작품에서 ‘영호’는 평소에 소극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영수’를 비꼬며 건들거렸지만, <보기>에서는 형에게 뒤처리를 떠넘기듯 도피하였다.
- ④ ‘영수’가 <보기>에서 “이젠 그렇게 안 살 거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자신의 적극적이지 못한 행동을 못마땅해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이 작품에서 ‘영호’와 달리 ‘영수’는 별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데, <보기>에서는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08 앞부분에 제시된 내용으로 보아 집이 철거될 위기에 놓여 가족들이 모여 논의를 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영희’는 쓸쓸한 마음에 집 앞으로 걸어 나온 것이다. 또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도 철거를 막을 대책에 관한 생각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철거를 막을 대책을 찾기 위해 집을 나온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활동 연구 문제

120~122쪽

01 ① 02 ③ 03 ④ 04 ④

01 ‘낙원구 행복동’은 ‘난장이’ 가족이 사는 빈민촌으로, 낙원이나 행복과는 대조되는 공간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02 소설과 달리 드라마는 카메라가 3인칭의 시점으로 모든 인물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전달한다. 따라서 드라마에서 인물들의 심리는 대사, 표정, 행동 등을 통해 제시된다.

03 이 작품과 <보기>에 등장하는 ‘꽃’은 모두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피어 있다. 이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남아 있는 꿈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4 노래 가사는 제한된 글자 수와 리듬감을 고려하여 간결하게 표현하게 되므로,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글자 수의 제약이 있다고는 하나 주제 의식을 임의대로 바꾸어 표현하지는 않았다.



소단원 평가 문제

125~128쪽

- 01 ⑤ 02 ⑤ 03 ⑤ 04 ④
 05 [예시 답안]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별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06 ⑤ 07 ② 08 ①
 09 ① 10 ② 11 ① 12 ③ 13 ⑤
 14 [예시 답안] 철거로 인해 '동네 전체가 공사판이고 흙무더기'가 된 상황에서 쓰러진 꽃을 다시 세워 묻는 '영희'의 행위는 다시 행복해 질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뜻한다.

01 이 작품은 1연에서 '~에서 ~를 ~다본다.', 2연에서 '~(은)는 ~ 속에 사라지고(사라진다)'라는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별과 '나'의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2 이 작품에서 화자는 별과의 헤어짐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재회를 소망하고 있으므로 ⑤의 '별과 헤어져 좌절한 화자의 마음을 고려'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3 이 작품에서는 '나'가 별을 쳐다보고 있으므로 화자와 대상의 위치가 수직적 구도를 이루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작품은 '나'와 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지만, <보기>에서는 '나'가 중심에 있으며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오고 간다고 말하고 있다.

04 2연에 따르면 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진다. 이것은 밤이 깊어지다가 아침이 되면서 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④와 같이 태양보다 더 빛나는 별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별과 나는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말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설의법을 사용하여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표현 방법과 화자의 마음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표현 방법과 화자의 마음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표현 방법과 화자의 마음 중 하나만 서술하면서 그 내용도 미흡한 경우	1점

06 이 작품에 등장하는 '통장'은 철거 계고장을 '난장이' 가족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것에 담긴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난장이' 가족에게 어떤 선택이 있는지를 말하

며 난감해하고 있다. 이로 보아 '통장'의 말에는 '난장이' 가족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07 <보기>는 원작 소설의 일부로, 시간적 배경은 아침이지만 (나)의 시간적 배경은 저녁이다.

오답 풀이

④ <보기>에서는 '나'가 철거 계고장을 '어머니'에게 건네 나, (나)에서는 '통장'이 등장하여 건네고 있다.

⑤ <보기>에서는 첫째 아들 '영수'가 '나'로 등장하여 내용을 서술한다.

08 ①은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통장'을 부르는 부분이다. '통장'의 등장에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을 통해 '어머니'는 그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9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난장이'라면 그가 하늘 위로 높이 던지는 쇠공은 비상의 꿈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목의 '작은 공'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보여 주는 소망, 꿈, 의지 등으로 볼 수 있다.

10 '영호'는 현실에 불만이 많으며, 막연하지만 자신이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1 이 작품에서 '영호'는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영수'에게 불멘소리를 하며 신경질적으로 샌드백을 친다. <보기>에서 '영호'는 집을 헐러 오는 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낸다. 이로 보아 이 작품과 <보기>에서 '영호'는 모두 다혈질의 직설적인 성격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③ (나)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꽃'과 <보기>의 '팬지꽃'은 '영희'와 관련된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12 '영희'는 (가)의 퇴근하는 장면에서 밝은 얼굴로 대화를 하고 있다.

13 '행복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불행한 모습을 보여 주므로 ①은 반어적 표현법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③ 역설적 표현이 쓰였다.
- ②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④ 추상적인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였다.

- 14** [A]에서는 빈터만 남은 황량한 풍경과 공사판이 된 동네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보아 ‘영희’를 둘러싼 외적 상황은 황량하고 부정적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피워 내려는 의지가 꽃을 다시 세워 묻는 ‘영희’의 행위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꽃을 다시 세워 땅에 묻는 ‘영희’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꽃을 다시 세워 땅에 묻는 ‘영희’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점
꽃을 다시 세워 땅에 묻는 ‘영희’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서술하였으나 <조건>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잘못된 내용도 있는 경우	1점

대단원 평가 문제

133~138쪽

- 01** ① **02** ② **03** **예시 답안** ‘최 씨’는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다고 말할 정도로 ‘이생’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며 사랑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이다.
- 04** ③ **05** ① **06** **예시 답안**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화해하고 화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 07** ② **08** ④ **09** **예시 답안** ㉠에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별과의 재회에 대한 ‘나’의 소망을 강조할 수 있다. **10** ④ **11** ④ **12** ⑤ **13** ②
- 14** ③ **15** ② **16** **예시 답안** 두 작품 모두 재개발로 인한 철거민의 입주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난장이>가 쓰여 올린 작은 공의 ‘난장이’ 가족은 철거민으로서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하는 입장이고, <보기>의 ‘그’는 그런 철거민의 입주권을 사서 이주를 꿈꾸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두 작품의 작가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 개발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 01** <보기>에는 ‘남원’, ‘지리산 연곡사’ 등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고, 이 작품에도 ‘개성’, ‘북주’ 등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다.

- 02** 이 작품은 홍건적의 난이 일어난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나)의 ‘최 씨’의 말로 보아 여자들은 집안 일에만 신경 쓰고 그와 관련된 일을 배웠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분으로 인해 만남이 금지된 상황은 언급되지 않았다.

- 03** (나)의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 안을 한 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사랑에 적극적인 ‘최 씨’의 면모를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최 씨’의 말을 근거로 성격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성격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최 씨’의 말을 근거로 인용하지 않은 경우	3점
(나)에서 알 수 없는 ‘최 씨’의 성격을 언급한 경우	1점

- 04** (나)의 ‘-로 태어나니라’, ‘-지 않으리라’와, (다)의 ‘-는 ~ 속에 사라진다’와 같이 두 작품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1연을 8연에서 변용하고 있으나 이를 수미 상관의 구성으로 보기 어렵고, (나)에서도 수미 상관의 구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 ② (가)에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④ (가)~(다) 모두 화자의 감정을 다른 사물에 이입시키는 감정 이입은 쓰이지 않았다.
- ⑤ (가)~(다) 모두 대화의 형식은 쓰이지 않았다.

- 05** <보기>에서 드러난 윤동주의 모습과 화자를 연결했을 때, 자기반성 및 현실 극복의 의지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가)의 화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통해 현실 극복의 지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화자는 성찰적 인물이 맞으나, 타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는 알 수 없다.

- 06** 손을 내미는 ‘나’는 내면적 자아이며 뒤이어 나오는 ‘나’는 현실적 자아이다. 두 자아가 최초로 악수를 나누는 것은 두 자아가 소통하며 화해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두 자아의 화해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두 자아의 화해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를 서술하였으나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3점
두 자아에 관한 언급 없이 '화해하였다'만 서술한 경우	1점

07 이 작품의 화자는 고양이가 되어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상상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화자는 평범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야생의 삶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취적이고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8 야생의 자유로운 삶을 사는 고양이가 되어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㉔를 찾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㉔는 야생에서의 자유로운 삶과 관련된 소재로 볼 수 있다.

09 ㉔에는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평서형의 문장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면 문장에 변화를 주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㉔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모두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㉔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적절한 내용으로 서술하였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점
㉔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효과 중 하나만을 적절한 내용으로 서술한 경우	1점

10 이 작품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순행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등장인물이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라)를 보면 주인공의 운명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다.
- ② 3인칭 전지적 시점이지만 '남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남자'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③ 회사를 가기 위에 눈을 파헤치고 그로 인해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과장적인 상황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는 거의 없고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11 폭설로 인해 회사에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출근을 재촉받고 회사에 가기 위해 눈을 파다가 죽게 되는 인물의

모습에서, 경쟁 사회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채 기계적인 노동을 강요당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2 ㉔은 추운 날씨에 장시간의 삽질로 지쳐 쓰러져 눈이 감기는 '남자'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13 이 작품은 드라마 대본으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전달하는 소설과 달리 드라마에서는 3인칭 시점의 카메라가 모든 인물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따라서 인물들의 심리가 대사, 표정, 행동을 통해 묘사된다.

14 (나)에는 여성의 능력이 차별받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새벽 3시에도 멈추지 않는 공장의 기계와 졸고 있다는 이유로 '조장'의 옷핀에 찢리는 '영희', 일을 하기 위해 잠 깨는 약을 먹는 '영희'와 '파마 아줌마'의 모습 등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1970년대에는 생산성이 우선시되어 공장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 당했음을 알 수 있다.

15 ㉔은 '난장이' 가족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 쫓겨나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난장이' 가족은 지금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얹친 데 얹친 격으로 강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깊이 걱정할 것이다.

16 수행 평가 풀이 | 난이도 ★★★

평가 요소 상호 텍스트성의 맥락

채점 기준	배점
'난장이' 가족과 '그'가 처한 상황을 <조건>에 모두 맞추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난장이' 가족과 '그'가 처한 상황을 서술하였으나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8점
'난장이' 가족과 '그'가 처한 상황을 서술하였으나 <조건> 중 둘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5점

3 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① 제가야산독서당(최치원)

작품 감상 01

» 142~143쪽

01 ④ 02 ⑤ 03 ① 04 ②

05 **예시 답안** 이 작품이 쓰인 통일 신라 시대에는 한자가 한국어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이 한국인의 정서와 생활을 한자로 표현한 이 작품도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01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한시로,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정서와 관련된 애상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① ‘첩첩한 돌’과 같은 시각, ‘미친 듯 ~ 울리니’와 같은 청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
- ② 4행에서 본래 물이 산 주위를 흐르는 것을 화자 자신이 물에게 산을 둘러싸도록 했다고 표현하여 자연을 화자의 생각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
- ③ 선경후정(先景後情)이란 경치에 관한 묘사(외적 상황)가 먼저 나타나고, 뒤에 정서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하는 시상 전개 방법을 말한다. 이 작품도 1, 2행에서 외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3, 4행에서 화자의 내면세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⑤ 1행에서 산속에 흐르는 물소리를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02 4행에서 본래 물이 산 주위를 흐르고 있는 것을 화자 자신이 흐르는 물로 하여금 산을 둘러싸게 했다고 표현함으로써 속세와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에서 화자는 ‘흐르는 물’로 속세의 소리를 차단하려고 한다.
- ② ‘물’은 모성, 생성, 죽음, 단절, 재생, 정화 등 다양한 원형적 이미지를 지닌 소재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단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③ 이 작품에서 ‘물’은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이나 그렇게 노는 것’을 의미하는 풍류의 대상이 아니다.

④ 이 작품에서 ‘물’은 화자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수단, 방법 등을 의미한다.

03 이 작품은 자연을 상징하는 ‘흐르는 물’과 인간, 즉 세속의 소리를 상징하는 ‘사람의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를 대조시켜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서 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그리고 있다.

04 지척에서도 사람 소리를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의 물소리가 커서 가까운 거리의 사람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05 통일 신라 시대는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어 한자가 우리 글처럼 사용되던 시기이다. 한국어를 한글로 한정한다면 한글 창제 이전의 작품을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한국 문학의 범위를 이야기할 때, 당시 우리글의 위상을 지닌 문자를 한국어에 포함시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점 기준	배점
한자로 문학 활동을 한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한시가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한자로 문학 활동을 한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한시가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4점
한자로 문학 활동을 한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한시가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유를 서술한 경우	2점

활동 연구 문제

» 144~146쪽

01 ② 02 ⑤ 03 ⑤

01 [A]로 보아 이 작품의 화자는 난세에 처신하기 힘들어 하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극복하기보다는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것을 택하고 있다.

02 문학은 언어로 된 예술이다. 문자를 조형물(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으로 만든 물체)로 다룬 작품은 미술 작품이지 문학이 아니다.

- 03 구비 문학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통해 감동이나 즐거움을 얻고 우리가 속한 세계나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이처럼 구비 문학도 문자로 기록된 문학처럼 정서적·미적 기능,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문학에 포함된다.

② 황진이(홍석중)

작품 감상 02

» 148~153쪽

- 01 ② 02 ③ 03 ③ 04 ④
 05 [예시 답안] 서출이라는 출생의 배경이 밝혀져 파혼을 당하며 느낀 '황진이'의 고통이나 슬픔, 자신을 연모하다가 상병으로 죽게 된 총각에 대한 '황진이'의 심정 06 ② 07 ②
 08 ⑤ 09 ① 10 [예시 답안] 구경군들은 '황진이'가 직접 상행 앞에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1 ③ 12 ④ 13 ⑤
 14 목석과 같은 녀인

- 01 이 작품은 우리의 고유 풍습인 장례 문화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황진이'라는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하고 있으나 '놈이'라는 가상 인물을 등장시켜 그들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③ 이 작품은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까지 서술하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취하고 있다.
 ④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제시되지 않았다.
 ⑤ 전기적(傳奇的)인 사건이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초월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을 말하는데, 귀신과 인연을 맺거나 용궁에 가 보는 것과 같은 기괴하고 신기한 일을 일컫는다. 이 작품에는 이러한 전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 02 (나)에서는 장례와 관련된 전통적 소재인 '방상시, 명정, 망장, 상여, 공포, 상두수반, 상두군' 등을 사용하여 장례 풍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개함 속에 간직해 두었던 '황진이'의 혼수는 장례식 풍속을 재현하는 것

과 관련이 없다.

- 03 '놈이'가 '황진이'를 파혼당하게 하고는 있으나 그는 여전히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으며 뒤에 이어지는 행적으로 볼 때, '황진이'와 극한 대립을 이루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놈이'는 하인이면서도 '황진이'를 마음에 두고 파혼당하게 한 행동이나 후에 양반 사대부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화적패의 우두머리가 되는 행적 등으로 볼 때, 봉건적 사회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놈이'는 '황진이'와의 사랑을 그리기 위해 작가가 새롭게 만들어 낸 인물로(口), '황진이'를 짝사랑하지만 그녀가 서출임을 폭로하여 '황진이'를 파혼당하게 하는 등(ㄱ) 작품의 이끌어 가는 핵심 인물(ㄴ)이다.

- 04 구경군들은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양반가의 고명딸, 상병으로 죽은 총각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이 관심은 자기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황진이'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 05 '남의 고통이나 슬픔'은 '황진이'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으로, '앞부분 줄거리'를 보아 서출이라는 그녀의 배경이 밝혀진 사건과 자신을 연모하던 총각이 죽게 되는 사건과 관련이 깊다.

채점 기준	배점
'앞부분 줄거리'의 내용을 반영하여 '황진이'의 고통이나 슬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황진이'의 고통이나 슬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앞부분 줄거리'의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점
'황진이'의 고통이나 슬픔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점

- 06 (다)~(라)에는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는 소재가 사용되지 않았다.

- 07 '황진이'는 구경군들의 예상과 달리 혼백을 무서워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도망치지 않고 사람들의 호기심과 편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

- 08 <보기>로 보아 이 작품은 계급성을 중시하는 북한 문학과 달리, 황진이의 사랑과 역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계급성을 우위에 두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9 (다)의 ‘상직할멈과 이금이가 등 뒤에서 간을 졸이며 공포에 질린 눈길로 주인아씨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보아 ‘상직할멈’과 ‘이금이’는 ‘황진이’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눔이’는 ‘황진이’가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주의를 줬기 때문에 나서지 못한 채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황진이’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사람들의 호기심에 맞서 상행 앞에 나서려고 문을 열고 있다.
- ⑤ 상두군이 ‘황진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10 구경군들은 죽은 혼백이 무서워 달아났거나 집 안에 들어박혀 있을 줄 알았던 ‘황진이’가 직접 상행 앞에 나타나 놀라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구경군들이 놀란 이유를 본문을 활용하여 바르게 제시한 경우	5점
구경군들이 놀란 이유를 바르게 제시하였으나 본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3점
구경군들이 놀란 이유 외에 다른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1점

- 11 [A]에서 ‘황진이’는 진심으로 총각의 죽음을 슬퍼하고 자신을 향했던 총각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저승에서의 사랑을 약속한다. 이는 죽은 혼백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것이지 구슬려서 내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 12 ㉠에서 ‘붉은 슬란치마’는 ‘황진이’가 상사병으로 죽은 총각의 혼백을 위로하고 저승에서의 사랑을 약속하는 증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바)에서 ‘진이는 사람들의 구구한 시비와 말밥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은 ‘황진이’의 따뜻한 마음씨와 사랑에 대한 굳은 다짐에서 나온 행동이지 구경군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13 ‘뒷부분 줄거리’에 따르면 ‘황진이’는 자신을 둘러싼 사대부가의 위선과 허위를 알게 된 후, 양반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기생이 되어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 살아간다. 여기서 ‘황진이’가 기생이 되기로 결심한 것은 ‘눔이’가 화적패가 되기도 전의 일이며 눔이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다.

- 14 (바)에서 ‘황진이’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 ‘목석과 같은 녀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이로 보아 앞으로 ‘황진이’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활동 연구 문제

154~156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①

- 01 이 작품에서 양반과 하인의 신분 격차를 존중하는 ‘황진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황진이’는 양반의 허위와 가식에 맞서기 위해 기생이 되기로 결심한다.
- 02 ‘눔이’는 작가가 창조한 인물로, 낡은 사상과 봉건 제도, 관습을 뛰어넘으려 했던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뒷부분 줄거리’에 따르면 그는 ‘황진이’의 사랑을 얻지만 생을 마감함으로써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따라서 ‘황진이’의 사랑을 끝내 얻지 못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3 이 작품의 주인공인 ‘황진이’는 남한에서도 여러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작품으로 창작되고 있다.
- 04 이 작품에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나도 그들처럼(백무산)

작품 감상 03

158~159쪽

- 01 ③ 02 ③ 03 ⑤
- 04 **예시 답안** 영상과 소리, 문자가 어우러져 있어 작품을 더욱 실감 나게 감상할 수 있어. / 댓글을 통해 다른 독자들과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어.

01 이 작품에서는 모순되는 표현, 즉 역설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② ‘바람·비·별·대지·숲’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과거의 삶과 ‘계산, 측량, 해석, 부동산, 시계’가 된 현재의 삶을 대조적인 시어로 대비시키고 있다.
- ④ 1~5연의 ‘나는 ~ 습니다. 내가 ~ 전에는’과 6~8연의 ‘~ 습니다’와 같이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1~5연의 ‘나는 ~ 습니다. 내가 ~ 전에는’에는 도치법이 사용되어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02 [A]는 자연적 삶을 나타내고 [B]는 이성적, 분석적 삶을 나타내며 화자는 [A]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B]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B]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통해 [A]의 삶을 그리워한다. 따라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은 [B]임을 알 수 있다.

03 이 작품의 화자는 현재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연과 소통하며 자연적 생명력으로 충만했던,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 태도는 찾을 수 없다.

04 디지털 문학의 특징은 문학의 창작, 수용, 소통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진우’의 말처럼 다양한 기기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종이 매체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댓글 활동을 통해 다른 독자들과 활발한 문학적 소통을 경험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진우’의 말을 바탕으로 디지털 문학 감상의 특징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진우’의 말을 바탕으로 디지털 문학 감상의 특징을 서술하였으나 일부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4점
‘인터넷으로 감상하였다’는 식으로 디지털 문학의 구체적인 특징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2점

활동 연구 문제

01 ② 02 ②

01 ‘소용돌이’는 화자가 ‘바람’의 이웃이었고 ‘물’과 ‘별’의 동무였으며, 그들과 말 놓고 살았던 과거의 삶과 관련이 있다. 모두가 한데 뒤섞여 어울려 사는 삶은 자연의 본래적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02 디지털 시대의 문학은 문학 활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면서 더욱 자유롭고 적극적인 문학 활동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문학의 개념이나 범위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소단원 평가 문제

166~169쪽

- 01 ③ 02 ⑤ 03 ④ 04 ① 05 ④
- 06 ③ 07 ① 08 **예시 답안** ‘소용돌이’는 ‘바람, 비(물), 별, 대지, 숲’과 같이, ‘계산, 측량, 해석’되지 않은 자연 본래의 모습, 생명력이 충만한 모습을 의미한다. 09 ①
- 10 ④ 11 ④ 12 ⑤ 13 ④
- 14 **예시 답안** ㉠의 호기심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에서는 진이의 당찬 성격을, ㉡의 죽은 혼백을 위로하는 모습에서는 진이의 따뜻한 품성을 알 수 있다.

01 이 작품의 화자는 ‘시비하는 소리’(속세)를 두려워하고 그 소리를 막기 위해 일부러 ‘흐르는 물’(자연)을 온 산에 돌렸다고 표현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때 ‘시비하는 소리’와 ‘흐르는 물’은 서로 대조적인 시어이다.

02 이 작품에 그려진 자연은 이상향이라기보다는 속세를 벗어난 도피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1행에서는 ‘첩첩한 돌 사이’, ‘겹겹 봉우리’의 시각적 이미지와 ‘미친 듯 내뿜어’, ‘울리니’의 청각적 이미지로 산과 계곡물을 묘사하고 있다.
- ② 2행에서 자연의 물소리 때문에 사람 말소리를 분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③ 3, 4행에는 자연의 물소리를 이용해 시비하는 소리를 막겠다는 화자의 의지, 즉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④ 4행은 화자가 자연을 자신의 소망을 투영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03 이 작품을 창작된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감상하면 속세를 의미하는 ‘시비하는 소리’는 당대의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 ①, ② ‘첩첩한 돌 사이’와 ‘겹겹 봉우리’는 계곡물이 흐르는 산을 나타낸 것으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야산’을 가리킨다.
- ③ ‘사람 말소리’는 속세의 소리로, 혼란한 정치 상황에서 나오는 소리이며 최치원의 뜻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소리이다.
- ⑤ 화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운 삶이 아니라 속세의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이다.

04 한글 창제 이전에 창작된 문학과 관련해서 표기 글자가 당시 한국어의 위상을 지닌 경우에는 한국 문학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로 보아 신라 당시에는 한자가 한국어의 위상을 지녔기 때문에 한시도 한국 문학에 포함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글로 언제 번역을 했는지는 한국 문학의 범위를 논의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

05 이 작품은 ‘바람, 비, 별, 대지, 숲’과 ‘계산, 측량, 해석, 부동산, 시계’와 같은 일상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각각 ‘자연적 생명력이 충만한 삶’과 ‘이성적, 분석적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6 이 작품은 측량된 이후로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화자의 삶을 비판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6연의 ‘까닭 없이’와 7연의 ‘터무니없이’는 현재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07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연과 이웃으로 어울려 지낼 수 있었던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며 생명력으로 충만한 자연적 삶을 지향한다. ①은 입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므로 이 작품의 화자가 추구하는 삶과 거리가 멀다. ①에서 ‘만중운산’은 입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지는 잎 부는 바람’은 작각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 ② 물욕과 명리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 ③, ⑤ 자연을 벗 삼아 지내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④ 자연과 하나가 되어 풍류를 즐기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08 마지막 행에서 화자는 자신도 ‘바람, 물, 별’처럼 ‘계산’이나 ‘해석’ 되지 않은 자연 본래의 모습이었다고 성찰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조건〉에 맞추어 ⑤의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⑤의 의미를 〈조건〉 두 가지 중 하나에만 맞추어 서술한 경우	3점
⑤의 의미를 〈조건〉 두 가지에 모두 맞추지 않고 서술한 경우	1점

09 액자식 구성이란 소설이나 희곡 따위에서 이야기 속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성으로, 이 작품에서는 취하고 있지 않다.

10 〈보기〉에서는 북한 소설 〈황진이〉를 읽은 후 남북한 문학의 동질성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계급성과 민중성을 우선시하는 북한 문학의 특수성에 대한 진술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에 가까우므로 〈보기〉와 같은 관점과 거리가 있다.

11 ‘황진이’가 집 안에 들어박혀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구경꾼들의 예상과 달리, 그녀는 문을 열고 나와 죽은 총각의 혼을 진심으로 위로했다. 또한 ‘황진이’는 사람들의 구구한 시비와 말밥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12 ‘황진이’가 자신의 혼수였던 ‘붉은 슬란치마’를 죽은 총각의 혼백을 위로하기 위해 덮어 주고 저승에서의 사랑을 위한 약속의 증표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붉은 슬란치마’에는 이승에서 혼인하지 않고 홀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황진이’의 결심이 드러나 있다. 〈보기〉에서 화자는 입에 대한 자신을 마음을 ‘뿔뿔’에 담아 보내며 뿔뿔에서 ‘새넌’이 나면 자신인 듯 봐 달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뿔뿔’은 자신을 잊지 말라는 화자의 당부를 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붉은 슬란치마’는 죽은 총각을 위로하는 황진이의 마음이 담겨 있고, ‘뿔뿔’은 입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담겨 있다.
- ③ ‘붉은 슬란치마’는 ‘황진이’의 혼수품으로, 이승에서 다시는 혼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소재이

므로 가련한 여인의 이미지와 관련이 없다.

- ④ ‘붉은 슬란치마’와 ‘뫼버들’에는 원망의 마음이 드러나 있지 않다.

- 13 ㉠에서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 겪은 마음고생, 그리고 자신을 짝사랑하다가 죽은 총각에게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등으로 눈물을 흘린 것이다.

- 14 구경꾼들의 호기심에 맞서는 행동과 혼백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행동을 통해 황진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을 대하는 황진이의 행동에서 알 수 있는 성격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과 ㉡을 대하는 황진이의 행동에서 알 수 있는 성격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과 ㉡의 행동에 따른 구분 없이 인물의 성격을 ‘좋다’와 같이 대략적으로 서술한 경우	1점

(2)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1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상화)

작품 감상 01

» 172~173쪽

01 ① 02 ⑤ 03 ②

- 01 풍자는 부정적 현실이나 모순 등을 빗대어 웃으면서 비판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봄을 맞은 기쁨과 국권을 빼앗긴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담담한 어조와 영탄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풍자적 어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②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모순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청각을 시각으로 표현한 ‘푸른 웃음’을 통해 대상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어’, ‘네가 끝었느냐’, ‘종다리는 ~ 반갑다 웃네’ 등에서 의인법을 사용해 자연물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1연에서 묻고 11연에서 스스로 답하는 형식으로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02 ‘나비’와 ‘제비’는 봄을 맞은 국토의 생동감과 그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로, 국권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과는 관련이 없다.

- 03 2연에서 봄의 경치에 이끌리던 화자는 3연에서 부정적 현실에 침묵하는 조국으로 인해 답답해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11연에서 화자는 국권 상실이라는 현실을 재인식하고 절망감이 깊어지고 있을 뿐, 극복 의지는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4~6연에는 봄을 맞이한 국토의 활기찬 모습이 드러나 있을 뿐, 이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7연에는 봄을 맞은 즐거움과 국토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 있으나 짧은 봄에 대한 아쉬움을 찾을 수 없다.
 ⑤ 9연과 10연에서 화자는 부정적 현실을 인식하고, 봄을 맞이한 국토에 대한 기쁨과 부정적 현실 사이에서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다.

활동 연구 문제

» 174~176쪽

01 ③ 02 그러나, 빼앗기겠네. 03 ④

- 01 이 작품은 국권 상실의 비극적 현실을 그린 시이지만 국권 회복에 대한 확신은 드러나 있지 않다.

- 02 이 작품의 11연은 1연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화자는 ‘빼앗긴 들’이라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진정한 봄이 올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이 작품의 화자는 국권 상실의 안타까움과 국토 회복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해 조국의 절망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심화하여 절망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 03 문학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은 전 세계 문학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특징이다.

② 변신(프란츠 카프카)

작품 감상 02

» 178~183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① 05 ①
06 ④ 07 예시 답안 '여동생'은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를 연민으로 대하다가 '그레고르'의 경제력 상실로 생계가 어렵게 되자 그를 원망하며 내쫓으려고 한다. 08 ① 09 ④
10 ④ 11 ② 12 예시 답안 '여동생'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그레고르'를 원망하고 내쫓으려 한다. 이는 정체 없는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면서 다른 사람을 적으로 대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01 이 작품은 어느 날 아침 주인공 '그레고르'가 벌레로 깨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에 대한 주인공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인과 관계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뚜렷한 사건의 진행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이 작품은 '그레고르'가 왜 벌레로 변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변신한 시점에서 사건이 곧바로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원인이 힘든 직장 생활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 03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주인공이 벌레로 변신하자 가족들은 그를 외면한다. 이처럼 주인공의 변신으로 그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비인간적 면모가 드러난다.
- 04 잠에서 깨어난 '그레고르'는 갑자기 벌레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아침처럼 출근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
- 05 '아버지'는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를 혐오하여 그에게 사과를 던지고 큰 상처까지 입힌다. 이로 보아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했음에도 출근하려 하고,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다. 이는 이기적인 모습과 거리가 멀다.
- ③ '여동생'은 부모님에게 '그레고르'를 내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④ '사장'은 의자에 걸터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며 직원에게 말한다고 하였다. 이는 합리적인 모습과 거리가

멀다.

- ⑤ '어머니'는 벌레로 변한 아들을 동정하지만 가까이 다가서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모습과 거리가 멀다.

- 06 '여동생'은 '그레고르'를 오빠라 하지 않고 '저것'이라고 낮잡아 부르고 있다. 이로 보아 '여동생'은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를 더 이상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심리적 부담만 주는 골칫거리로 생각하며 원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혐오하고 냉대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그레고르를 감싼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7 '여동생'은 '그레고르'를 연민으로 대하다가 그를 원망하고 내쫓으려 한다. 이렇게 '여동생'의 태도가 변한 것은 그가 경제력을 상실하여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배점
'여동생'의 태도 변화와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점
'여동생'의 태도 변화와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여동생'의 태도 변화만을 대략적으로 서술한 경우	1점

- 08 이 작품은 벌레가 된 주인공을 통해 필요가 없어지면 가족에게서도 버림받게 되는 삶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로 보아 이 작품의 제목인 '변신'은 인간 소외, 인간성 상실, 외부 세계로부터의 도피, 부조리한 현실 등을 의미한다. 외모 지상주의의 세태는 이 작품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 09 '그레고르'의 변신은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단절과 소외'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문학적 장치로, 현대인의 우유부단함과는 관련이 없다. '우유부단(優柔不斷)'이란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는 성격을 의미하는 말이다.

- 10 <변신>과 마찬가지로 <박씨전>에서 주인공의 변신은 독자에게 흥미를 준다. 즉 문학에서 변신 모티프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극의 진행에 흥미를 더해 주어 독자의 관심을 끌게 된다. 이는 변신 모티프가 지닌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11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았고, 벌레로 변해서도 가족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던 ‘여동생’이 자신을 내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비참한 심정이 들어 절망했을 것이다.

12 <보기>로 보아 ‘여동생’이 느끼는 알 수 없는 공포는 자신의 삶에 위협을 느끼고 상대를 적대시하는, 정체 없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소외 현상과 불안 심리와 관련이 깊다.

채점 기준	배점
‘여동생’이 느끼는 공포를 현대인의 공포와 불안에 연결하여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여동생’이 느끼는 공포를 현대인의 공포와 불안에 연결하여 서술하였으나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4점
‘여동생’은 정체 모를 불안과 공포를 겪는다.’와 같이 단편적인 감정만 서술한 경우	2점

활동 연구 문제

» 184~186쪽

01 ⑤ 02 ④ 03 ④

01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신하기 전 출장 외판 사원으로 살며 지속될 수도 없고 진실해질 수도 없는 만남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벌레로 변신한 후에는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다.

02 가족들이 ‘그레고르’를 냉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변신하면서 경제력을 상실하자 더 이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03 인간이 하루아침에 벌레가 된다면 마늘을 먹은 곰이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 모두 비현실적인 것이므로 어느 쪽이 더 비현실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소단원 평가 문제

» 189~191쪽

01 ① 02 ③ 03 ② 04 ②

05 [예시 답안] 이 작품의 제목은 일제 강점기 조국의 현실에 대한 절망적 인식과 자유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06 ②

07 ④ 08 ④ 09 ③

10 [예시 답안]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한 원인이나 이유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사건이 시작되고, ‘그레고르’가 죽고 가족이 평온을 되찾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고 있다. 이런 구성은 비인간적인 면모가 사회에 만연하며 인간 소외 현상이 일상적임을 드러낸다.

01 이 작품은 ‘종다리’, ‘울타리’, ‘아씨’, ‘보리밭’ 등 한국적 정감의 시어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화자는 영탄적 어조와 ‘답다워라’, ‘보고 싶다’, ‘우스웁다’ 등의 시어를 통해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봄’과 ‘빼앗긴 들’, ‘푸른 웃음’과 ‘푸른 설움’ 등의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였으나 과거에 대한 반성적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이 작품은 생성과 소멸이라는 존재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
- ⑤ 범위나 내용, 문장 구조 등을 심화·확대해 가는 것을 점층적인 사상 전개라고 하는데, 이 작품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02 8연에는 땅을 밟고 땀 흘리며 일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화자의 의구심은 찾을 수 없다.

03 이 작품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하늘’, ‘들’, ‘바람’, ‘종다리’, ‘보리밭’ 등을 의인화하였다.
- ③ ‘푸른 웃음’에는 청각이 시각으로 전이된 공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어 봄이 온 들뜬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국토의 일부분인 ‘들’로 국토 전체를 비유하였다.
- ⑤ ‘가르마 같은’, ‘아씨같이’, ‘삼단 같은’, ‘살찐 젓가슴과 같은’,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에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04 [A]와 [B]는 모두 들을 빼앗긴 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05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작품 제목에는 일제 강점기 조국의 현실이라는 한국 문학의 특수성과 함께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문학의 보편성이 담겨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관점에서 제목의 의미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중 하나의 관점에서만 제목의 의미를 서술한 경우	3점
겉으로 드러난 제목의 의미만을 서술한 경우	1점

06 이 작품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주인공의 회상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것을 우의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통해 인간성 상실을 비판하고 있다.
- 벌레로 변신한 주인공을 통해 인간 소외 문제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벌레로 변신한다는 비현실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현대인의 부조리한 삶의 모습을 비판한다.
- 경제력을 상실한 ‘그레고르’를 내쫓으려 하고 정체를 공포와 불안에 떠는 ‘여동생’의 말과 행동 등을 통해 현대인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 준다.

배경지식 더하기 부조리

부조리(不條理)는 불합리·배리(背理)·모순·불가해(不可解) 등을 뜻하는 단어로서, 철학에서는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을 뜻한다. 문학 작품에서의 부조리는 인간을 소외된 세계에 던져진 고독한 존재로 보고, 인간의 숙명적인 고독과 인간 해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된다.

07 (다)를 보면 ‘그레고르’는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낀다. 이를 통해 ‘그레고르’는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그레고르’의 죽음은 인간 소외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지만, 노력과 좌절이라는 인간의 한계와는 관련이 없다.

09 <보기>에서는 소통을 하지 못한 채 자기 자리를 지키고만 있는 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점차 사물화되어 가

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과 <보기>의 공통점은 소통이 단절된 인간 소외 문제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10 (가)를 보면 이 작품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인공이 벌레가 된 시점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마)를 보면 주인공이 죽자 가족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비일상적 사건으로 시작하여 비인간적 사건으로 끝맺는 구성이라는 특징과 그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비일상적 사건으로 시작하여 비인간적 사건으로 끝맺는 구성이라는 특징과 그 의미 중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	4점
‘주인공의 변신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난다.’는 식으로 대략적인 구성상의 특징만 서술한 경우	2점



대단원 평가 문제

196~200쪽

- 01 ③ 02 ① 03 ⑤ 04 ⑤ 05 ②
- 06 **[예시 답안]** (가)가 창작된 시기에는 우리글이 없어 한자가 한글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 최치원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가)는 한국 문학이다. 07 ①
- 08 ③ 09 ① 10 ② 11 ③
- 12 **[예시 답안]** ‘여동생’은 ‘그레고르’를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벌레로만 대하는데, 그 이유는 ‘그레고르’가 하숙인을 내쫓고 가족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13 **[예시 답안]** 두 작품은 모두 의사소통이 안 되고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비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처럼 두 작품은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와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비판한다.
- 14 **[예시 답안]** <원고지>와 <변신>은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와 인간성 상실’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그리면서 각 사회의 특수한 문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문학 작품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므로 문학 작품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비교하며 읽을 때 풍부하고도 심도 있는 감상이 가능하다.

01 (가)에서는 ‘사람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리’가 ‘흐르는 물’과 대조적인 의미로 쓰였고, (나)에서는 ‘바람’, ‘비’, ‘별’, ‘대지’, ‘숲’이 ‘계산’, ‘측량’, ‘해석’, ‘부동산’, ‘시계’와 대조적인 의미로 쓰였다. (다)에서는 ‘빼앗긴 들’과 ‘봄’이 대조적인 의미를 지녔다.

02 (가)의 화자는 숙세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잃어버린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며 계산되고 측량되는 현재의 삶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3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표현 방법을 설의법이라고 하는데, (나)에는 설의법이 쓰이지 않았다.

04 ㉠은 숙세의 시끄러운 소리를 막는 것이고, ㉡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자연 본래의 모습이다.

05 ㉢에는 들을 빼앗긴 현실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조국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06 (가)를 창작했던 통일 신라 시대는 한글 창제 이전으로, 한자가 한글을 대신하여 한국어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자로 표기된 한시 (가)도 이를 고려하여 한국 문학에 포함시켜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조건〉에 맞추어 (가)가 한국 문학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조건〉에 맞추어 (가)가 한국 문학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4점
(가)가 한국 문학에 포함된다는 주장만 서술한 경우	2점

07 (가)와 (나)는 모두 3인칭 전지적 시점이지만 (가)는 ‘황진이’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고, (나)는 ‘그레고르’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08 (나)에서 가족들이 ‘그레고르’를 냉대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한 삶을 보여 주는 것으로, 유럽 문학만의 특수성으로 보기 어렵다.

09 ‘황진이’는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시비에 관여하지 않고, 죽은 충각의 혼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다.

10 〈보기〉로 보아 이 작품은 ‘그레고르’를 비판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를 냉담하게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를 통해 소통이 단절된 현대인의 부조리한 삶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에서 ‘그레고르’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인물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11 ‘목석 같은 녀인’이란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 없는 여인으로, 앞으로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황진이’의 바람을 드러내는 말이다. ‘황진이’는 이런 바람대로 기생의 삶을 살면서 거짓과 위선에 차 있는 양반과 승려를 조롱하며 부조리한 세상에 주체적으로 맞서며 살아간다.

12 ‘여동생’은 “우리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려는 게 분명해요.”라고 하며 자신의 오빠인 ‘그레고르’를 ‘저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조건〉에 맞추어 ‘여동생’이 ‘그레고르’를 ‘저 짐승’으로 부르는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여동생’이 ‘그레고르’를 ‘저 짐승’으로 부르는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조건〉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점
이유 제시 없이 ‘여동생’이 오빠를 짐승이라고 생각했다.’ 정도로만 서술한 경우	1점

13 수행 평가 풀이 | 난이도 ★★★ |

평가 요소 상호 텍스트성의 맥락, 작품의 비판적 수용

채점 기준	배점
〈조건〉에 맞추어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서술한 경우	8점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서술했으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4점
〈조건〉에 맞추지 않고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다룬다.’ 식의 대략적인 서술을 한 경우	2점

14 수행 평가 풀이 | 난이도 ★★★ |

평가 요소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채점 기준	배점
〈조건〉에 맞추어 세계 문학과 한국 문학을 비교하며 읽는 것의 효과를 서술한 경우	10점
세계 문학과 한국 문학을 비교하며 읽는 것의 효과를 서술했으나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8점
‘문학 감상에 도움이 된다.’ 정도의 대략적인 내용만 서술한 경우	5점

4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1) 고대 문학

① 주몽 신화(작자 미상)

작품 감상 01

» 204~207쪽

- 01 ④ 02 ④ 03 ① 04 ④ 05 ④
06 ③

- 01 이 작품은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일대기와 고구려를 건국하게 된 과정이 제시된 건국 신화로, 당시 중국과의 교류 관계가 활발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신이함을 드러내고 고구려가 천제의 뜻으로 건국된 것임을 제시하여 건국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해 준다.
② 이 작품과 같은 건국 신화는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해당 집단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③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게 된 과정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⑤ 주몽은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수신인 하백의 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난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다.

- 02 유화가 귀양을 간 것은 혼인의 예를 갖추지 않고 해모수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유화는 귀양을 간 후 품 안에 햇빛이 비치어 잉태하게 되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03 물의 신 하백의 딸인 유화가 햇빛을 받고 잉태한 것으로 보아, 주몽은 고귀한 혈통을 지녔으며 기이하게 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 04 주몽의 능력이 뛰어나 대소가 질투하는 것이지만, 이 점이 주몽의 신이함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 05 <주몽 신화>와 같은 건국 신화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집단에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여 결속력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공동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 06 아들인 대소의 말을 들은 후 금와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

르게 하여 그의 뜻을 시험한 것으로 보아 금와왕이 주몽을 끝까지 믿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활동 연구 문제

» 208~210쪽

- 01 ③ 02 ① 03 ② 04 ①, ③ 05 ②

- 01 <주몽 신화>에서 ‘주몽’은 하늘의 인물이 직접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천신(天神)과 수신(水神)의 후손이 태어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이다.

- 02 유화가 알을 낳자 금와왕은 상서롭지 못하게 여기고 말을 기르는 곳과 깊은 산에 버렸다. 이는 주몽이 어렸을 때 버림받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03 <주몽 신화>를 통해 고구려의 건국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의 생활상도 파악할 수 있다. 어사 강력부추의 “요즈음 어량(魚梁) 안의 고기를 훔쳐 가는 자가 있는데”와 “왕이 어사를 시켜서 그물로 그 짐승을 끌어내게 하였더니”에서 당시 어량과 그물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어부를 높여 부르는 말인 ‘어사’라는 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어부의 사회적 계급이 그리 낮았던 것은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③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일컫는 부여의 말로 당시 수렵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④, ⑤ ‘신모’라는 말과 유화가 오곡의 씨앗을 주는 모습을 통해 농경이 신성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04 이규보는 신화에 나타나는 신이함은 나라를 세운 신령한 자취이며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까닭은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신화는 오늘날까지도 민족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05 단군은 환인의 아들인 환웅과 웅녀의 후손이고, 주몽은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의 딸인 유화의 후손이므로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다.

오답 풀이

- ① 주몽은 건국 과정에서 대소 및 그의 신하들과 투쟁의

과정을 거치지만, 단군은 투쟁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 ③ 두 작품 모두 천상에서 하강한 인물이 직접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나라를 세운다.
- ④ 건국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두 작품 모두 언급되어 있지 않다.
- ⑤ 용녀는 고난을 겪은 뒤 천상의 인물과 결합하지만, 유화는 천상의 인물과 결합한 뒤에 고난을 겪는 차이점이 있다.

2 공무도하가(백수 광부의 아내)

작품 감상 02

212~213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④

- 01 이 작품은 개인적인 서정을 노래한 작품으로, 집단적 주술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 02 이 작품에서 ‘물’은 임이 그것을 건너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사랑을 표출하는 소재이다. 하지만 결국 임은 물을 건너고 그가 죽음으로써 화자는 임과 영원히 이별하게 된다. 즉, 마지막 부분에서 ‘물’은 임의 죽음이나 화자의 슬픔과 관련된다. 하지만 임이 다시 환생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 03 1, 2행에서 화자는 물을 건너려는 임을 만류(㉠)하지만 결국 임은 물에 빠져 죽게 된다. 3, 4행에서는 물(㉡)에 빠져 죽은 임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원망, 안타까움, 체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04 이 작품은 이별의 슬픔과 한을 노래하고 있다. <관동별곡>은 정철이 관동 지방의 뛰어난 경치와 임금에 대한 충성을 노래하고 있어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이 적다.

활동 연구 문제

214~216쪽

01 ② 02 ⑤ 03 ㉠ 정다움, ㉡ 외로움 04 ④

- 01 이 작품의 화자는 건너지 말아야 할 물을 건너다 빠져 죽

게 되는 임을 보며 그에 대한 사랑과 이별에 대한 슬픔, 원망 등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임의 모습을 예찬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2 이 작품은 집단적 행사를 위한 노래가 아닌 개인의 사랑과 이별이라는 정서가 드러난 노래이다. 이는 주술적이거나 제의적 요소가 강했던 고대 문학에서 개인 서정시가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03 <황조가>는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를 보이고 있다. 1, 2행에서 정다운 피꼬리의 모습을 제시한 후 3, 4행에서는 홀로 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 04 <황조가>와 달리 <공무도하가>에서는 임이 죽었기에 화자와 재회가 불가능하지만, <황조가>에서는 떠난 임이 돌아온다면 재회가 가능한 차이가 있다.

오답 풀이

- ① 두 작품 모두 임과의 사랑과 이별이라는 개인적인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 ② 두 작품 모두 배경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 ③ <공무도하가>의 화자는 임이 물에 빠져 죽게 되어 이별하였고, <황조가>의 화자는 임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이별하였다.
- ⑤ <황조가>에서는 화자와 달리 암수가 서로 정답게 있는 ‘피꼬리’를 활용하여 임과 이별한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219~221쪽

- 01 ④ 02 ① 03 ④ 04 ③ 05 ②
- 06 [예시 답안] ‘신모’가 보리 씨앗을 보내 주었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농경이 신성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07 ① 08 ⑤ 09 ② 10 ⑤
- 11 [예시 답안] 임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탄식, 체념의 정서가 드러난다.

- 01 이 작품은 역사적 사실과 신화적 상상력이 결합된 고구려의 건국 신화이다. 따라서 실제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어머니인 유화가 금와왕의 별궁에서 주몽을 낳은 점은 주몽의 신이함과 관련이 없다.

03 <주몽 신화>에서 ㉔에 해당하는 내용은 주몽을 죽이려고 왕자 대소와 여러 신하들이 보낸 군사에게 주몽이 쫓기게 되는 부분이다.

04 <보기>에서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聖人)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할 따름이다.’에서 <주몽 신화>와 같은 건국 신화가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5 유화가 햇빛을 받아 잉태하였다는 것은 주몽이 천신(天神)의 후손임을 드러낸다.

오답 풀이

- ① 여사가 그물로 끌어내자 한 여자가 나왔고, 금와왕이 그 여자가 천제 아들의 비(妃)임을 알았다고 하였다.
- ④ 주몽이 좋은 말을 골라 일부러 야위게 한 것은 금와왕이 자신에게 안 좋은 말을 줄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주몽의 지혜로움을 알 수 있다.

06 ㉠에서 ‘신모’가 보리 씨앗을 보내 주었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농경이 신성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앞부분에서도 유화가 나라를 세우러 떠나는 주몽에게 오곡의 씨앗을 전해 준 것도 이러한 생활상을 드러낸다.

채점 기준	배점
예시 답안과 유사하게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점
예시 답안과 유사하게 제시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3점
내용을 적절하지 않게 서술한 경우	1점

07 (가)는 물을 건너는 임과 영원히 이별하게 되는 슬픔을, (나)는 정다운 피꼬리를 보면서 떠난 임을 그리워하는 슬픔이 나타나 있다.

08 (가)와 (나)는 모두 개인의 정서(이별의 슬픔)를 노래하고 있는 서정시이다. 원시 및 고대 초기의 시가는 집단이 공유하는 정서를 담은 노래였지만, 서서히 개인 서정시가 출현하였고, (가)와 (나)는 여기에 해당한다.

09 이 작품은 임과 이별하게 된 상황에서 슬픔과 원망, 안타까움 등의 정서가 드러난다. ②는 흥시를 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한탄하는 내용으로 <공무도하가>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 및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슬픔이 나타나 있다.

③ 이별의 상황을 거듭 확인하면서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④ 임을 떠나보낸 후의 회한(悔恨)과 그리움의 정서를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0 ㉠은 화자와 임을 단절시켜 이별의 슬픔을 함축·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기>의 ‘대동강 물’도 이별의 슬픔을 함축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을 뿐 ‘이별의 슬픔’을 함축하는 시어로 볼 수 없다.

11 ㉠에서는 물을 건너 임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원망, 체념,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난다.

채점 기준	배점
시적 화자의 정서를 두 가지 이상 적절하게 제시하여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점
시적 화자의 정서를 한 가지만 제시하여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3점
시적 화자의 정서를 제시하였으나 모호하게 서술한 경우	1점

(2) 중세 문학

1 찬기파랑가(충담사)

작품 감상 01

224~225쪽

01 ③

02 ④

03 ①

04 ②

- 01 <찬기파랑가>와 같이 향가 작품의 대부분은 집단의 소망보다는 개인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4행은 4구체 향가, 8행은 8구체 향가, 10행은 10구체 향가이다.
 ② 향가의 작가는 다양하지만 중심이 되는 작가층은 화랑과 승려 계층이었다.
 ④ 향가는 신라의 대표적인 시가로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표기하는 차자 표기의 하나인 향찰로 기록되어 전해진다.
 ⑤ 향가의 형태 중 10구체에는 9행 첫머리에 감탄사를 배치함으로써 시상을 고양하고 압축하는 역할을 하는 낙구가 드러난다.

- 02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던 시기에는 한자에 의존하여 문학 작품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향가 역시 한자를 활용한 향찰로 표기되었는데, 향찰은 한자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기록한 방법이다. 따라서 향가는 문자가 없던 시절에 시가 작품이 우리말로 어떻게 불렸는지 짐작하게 해 준다는 점과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03 하늘을 밝히는 ‘달’은 기파랑의 숭고하고 고매한 인품을 의미한다.

- 04 ②는 선비가 지켜야 할 강직한 지조와 절개를 사군자(四君子)의 하나인 국화의 미덕을 통해 노래한 작품으로, 화자가 국화의 높은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파랑을 예찬하고 있는 이 작품과 화자의 태도가 유사하다.

오답 풀이

- ① 봄날 밤에 느끼는 애상적인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③ 멸망한 고려의 옛 도읍지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회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벼슬을 그만두고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과 절개를 비장하게 노래하고 있다.

활동 연구 문제

226~228쪽

01 ②

02 ②

03 ②

- 01 기파랑의 숭고하고 고매한 인품을 ‘달’, ‘잣나무 가지’ 등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⑤ 기파랑을 추모하고 예찬하는 화자의 정서가 변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02 <헌화가>는 4구체 향가, <처용가>는 8구체 향가이다.
 03 ‘아야’는 감탄사로 볼 수 있으나, 고정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산별곡(작자 미상)

작품 감상 02

230~231쪽

01 ④

02 ⑤

03 ③

04 ④

- 01 이 작품에서는 ‘ㄹ, ㅇ’과 같이 가볍고 부드러운 음운을 주로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02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브란 쏘 었디 호리라’라는 표현을 통해 외로운 밤이 더욱 고된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시름 한 나도’와 같이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② ‘청산’과 ‘바를’은 피난처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공간에서 벗어난 이상향으로 볼 수도 있다.
 ③ ‘조롱곳 누르기 밍와 잡스와니 내 었디 흐리잇고’와 같은 표현을 통해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체념적 정서를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와 같은 표현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03 ㉠은 후렴구에 해당하며, ‘ㄹ’과 ‘ㅇ’ 음이 연속적으로 사용되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어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04 ㉠은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장면으로 사슴이 침대에 올라 해금을 켜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활동 연구 문제

232~234쪽

01 ③ 02 ③

01 ‘알리알리 알랑(라)성 알라리 알라’의 후렴구에는 ‘ㄹ’ 음과 ‘ㅇ’ 음의 연속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어 낙천적이고 명랑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ㄴ’ 음과 ‘ㅁ’ 음을 반복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바를’은 ‘청산’과 함께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을 의미한다.

③ 경설(이규보)

작품 감상 03

236~237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④

01 이 작품에서 작가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인물은 ‘손’이 아니라 ‘거사’이다.

오답 풀이

③, ④ 이 작품은 흐린 거울을 취하는 거사의 개성적인 시각을 통해 올바른 처세와 삶의 방식을 일깨우는 교훈적 내용의 한문 수필이다.

02 이 작품의 교훈은 거사의 말을 통해 드러난다. 거사는 완전히 깨끗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의 결점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03 이 작품에서 ‘손’은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것은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④ 거사는 거울은 맑은 것을 취해야 한다는 기존의 상식에서 벗어나 오히려 거울의 흐린 것을 취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거사는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04 ‘손’은 사물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이야기함으로써 거사가 이를 반박하여 새로운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거사의 말을 들은 손이 깨달음을 얻어 ④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활동 연구 문제

238~240쪽

01 ③ 02 ③

01 이 작품은 거울에 대한 거사와 손의 인식을 대비시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02 거사는 너무 맑은 것만 취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결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③은 사람이 지나치게 결백하면 남이 따르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거사의 태도와 유사하다.

오답 풀이

① 덕이 높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겉으로 떠벌리고 잘난 체하거나 뽐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② 위급한 때를 당하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잡고 늘어지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사람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으며, 서로 오래 겪어 보아야 알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인정에 의한 사귀이 있어야만 참된 사귀이라는 말이다.

4 시조 세 편(우탁/성삼문/홍량)

작품 감상 04

» 242~243쪽

01 ⑤ 02 ② 03 ① 04 ②, ⑤

- 01 세 작품은 평시조이다. 시조는 고려 시대에 발생하여 조선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창작되고, 현재에도 작품 창작이 이어지고 있는 갈래이다.
- 02 시조 1은 늙음에 대한 탄식을 주제로 하는 ‘탄로가’에 해당한다.
- 03 시조 2에서 ‘수양산’은 산의 이름을 가리키면서도 단종을 유배 보낸 ‘수양 대군’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중의적인 의미를 부여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04 시조 3에서 ‘뫼버들’은 임이 화자를 떠올릴 수 있게 임에게 보내는 화자의 마음이자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화자가 뫼버들을 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화자가 임 대신 뫼버들에 애정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활동 연구 문제

» 244~246쪽

01 ① 02 ⑤ 03 ④

- 01 <뫼버들 갈히 것거>는 임에게 바치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뫼버들’로 형상화하여, 비록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임에게 바치는 순정은 저 뫼버들처럼 늘 임의 곁에 있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임의 부재가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 02 제시된 시조 세 편은 평시조이며, 초장, 중장, 종장의 3행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후렴구는 나타나 있지 않다.
- 03 평시조와 <애기메꽃> 모두 4음보의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5 사미인곡(정철)

작품 감상 05

» 248~251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⑤ 05 ⑤
06 ③ 07 ① 08 ④

- 01 이 작품은 여성 화자의 독백 형식으로 입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본사 부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하는 사연을 노래하고 있다.
- ⑤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에 빗대어 노래하고 있다.
- 02 (다)의 ‘무심(無心)흔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흐느고야’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는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 03 (나) ‘연지분(鰾脂粉) 잇너마는 놀 위하야 고이 홀고’를 통해서 화자는 임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단장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이 작품은 우리말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궁중의 용어나 수준 높은 한자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 05 이 작품에서는 젊은 시절의 화자와 임의 관계를 그리워하고, 현재 이별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생애에서 뱀나비로 태어나 임에게 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전생의 화자와 임의 갈등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임이 계신 곳을 ‘옥누고쳐(玉樓高處)’라고 일컫는 것을 통해 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흐르밤 서리’와 같은 표현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동산(東山)의 들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뵈니’와 같은 표현을 통해 시간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와 같은 표현을 통해 화자가 위치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 06 ① 뒤에 이어지는 ‘저근덧 싱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흐니’를 통해 일년 내내 이어지는 간절한 그리움의 깊이를 표

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7 화자는 다시 태어나도 입을 따르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에 대한 변치않는 사랑이 이 작품의 주제임을 알 수 있다.

08 ㉔는 초가집의 처마를 가리키는 말이다.

활동 연구 문제

252~254쪽

01 ② 02 ④ 03 ③

01 이 작품의 본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02 이 작품에서 역설법은 나타나 있지 않다.

03 <보기>는 <사미인곡> 중에서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우리의 생각이나 정서를 유려하게 표현한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으로, <사미인곡>의 문학사적 가치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사미인곡>은 가사로서 길이에는 제한이 없는 시가 갈래이다.
- ② <사미인곡>은 4음보의 연속체의 형식을 취하는 가사이다.
- ④ ‘범나비’와 같은 비유적, 상징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사미인곡>의 작가인 정철은 지배층으로서 임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 뿐, 당대 민중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단원 평가 문제

259~263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① 05 ⑤
 06 ① 07 ③ 08 ③ 09 ① 10 ②
 11 ⑤ 12 ④ 13 L, C, R 14 ① 15 ③
 16 ⑤ 17 ③ 18 ⑤ 19 예시 답안

‘산’과 ‘구름’은 화자가 임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고,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로 작가가 처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임금 옆에서 작가를 탄핵한 간신배를 비유한 것이다.

01 (가)는 신라 시대의 귀족 계급인 승려와 화랑이 주로 향유하던 문학 작품이고, (나)는 고려 시대 서민들의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02 (가)는 기파랑의 죽음을 추모하는 작품으로 기파랑이 없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는 시름이 많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03 (가)는 10구체 향가 작품으로 후대의 시조 형식에 영향을 미쳤다. 10구체 향가는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시조는 초장-중장-종장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10구체 향가의 마지막 두 행인 낙구는 감탄사로 시작되며 시상을 종합하고, 주제를 드러낸다. 시조에서도 종장의 시작이 감탄사인 경우가 다수이며, 종장에서 시상을 종합하고 주제를 드러낸다. 하지만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주제를 드러낸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4음보로 끊어 읽는 것은 <보기 1>에만 해당한다.

04 이 작품의 화자는 일오라는 넷물가의 자갈 벌을 거닐며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흰 구름을 쫓아 떠간 것은 달이다.
- ③ 수풀을 보며 기파랑을 떠올렸을 뿐 기파랑과 함께 수풀을 노닌 것은 아니다.
- ④ 화자가 스스로를 성찰한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다.
- ⑤ 잣나무 가지는 기파랑의 높은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로, 기파랑에게 잣나무 가지를 선물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05 ‘눈’은 잣나무 가지를 뒤덮으려 하는 존재로 기파랑이 겪은 외적 시련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06 도교적 사상에 의하면 ‘청산’이 신선이 살아가는 이상향인 것은 맞지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이 작품의 화자를 민중이나 유랑민이라고 본다면 ①은 적절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이나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일 경우 ‘청산’은 ‘고향’을 버리고 살아갈 새로운 삶의 터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07 ‘임무든’은 ‘이끼 묻은’이란 뜻으로 이는 쟁기를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려 준다.

오답 풀이

- ① ㉠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 ② ㉠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에서 먹을 것으로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아니다.
- ④ ㉡은 던진 돌이 어디서부터 날아온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슬픔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의미하는 것이지 화자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다.
- ⑤ ㉢은 바다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이지만 ㉠을 거부한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은 아니다. ‘바다’와 ‘청산’의 의미가 유사하므로, ㉠과 ㉢ 역시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08 [A]에서는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하며 현재의 고난을 벗어나게 해 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09 (가)는 고려 시대에 창작된 가전이고, (나)는 고려 시대에 창작된 설이다.

10 ‘공방(孔方)’은 둥근 모양에 네모가 들어 있는 엽전의 모양을 따서 지은 이름으로 ‘돈’을 의인화한 인물이다.

11 (나)에서는 구체적 상황인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의 본질과 관련된 보편적 진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12 사람의 결점을 표용하는 태도를 지닌 것은 ‘거사’이다.

오답 풀이

- ① 흐린 거울은 맑은 거울과 달리 단점을 숨겨 준다.
- ② 못생긴 사람이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생긴 사람은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에 비해 수효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못생긴 사람은 결점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거사’는 일반적인 관점을 보이는 ‘손’과 다른 참신한 관점을 제시한다.

13 (가), (나), (다)는 모두 평시조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성과 함께 4음보의 율격을 갖는다.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가 둘째 음보보다 짧다.

14 ‘뿔버들’은 화자가 임에게 보내는 사랑의 마음이다. 또한 임이 화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소재로 화자 자신과 동일

시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뿔버들’은 뿔버들의 새잎이 나게 하는 소재로 사용되었으므로, 부정적 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춘산’은 봄을 맞은 산으로, 화자가 본받으려 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 ④ ‘바람’은 춘산의 눈을 녹이는 대상으로 화자의 시련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서리’는 머리가 하얗게 센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15 ‘이제(夷齊)를 한(恨)호노라’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는 이제를 비판하며 이제보다도 더 강직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작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16 <사미인곡>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17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임에게 좋은 옷을 지어 주고자 한다. 이는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드러낸 것이지 옷을 지어 줄 사람이 없는 임에 대한 걱정은 아니다.

18 ㉢은 남쪽에 위치한 이곳도 이렇게 추운데 임 계신 곳은 말할 나위 없이 추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9 ‘산’과 ‘구름’은 화자와 임 사이의 장애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함축적 의미를 <보기>에 제시된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지어 보면 ‘산’과 ‘구름’은 작가를 탄핵한 간신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의 의미를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5점
㉠과 ㉡의 의미를 서술하였으나 <보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3점
㉠과 ㉡의 의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서술한 경우	1점

(3)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

① 어이 못 오던가(작자 미상)

작품 감상 01

266~267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④ 05 ②

- 01 중장에서 화자는 ‘너’(임)가 오지 않는 까닭에 대해 추측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과장하여 답답한 심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④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재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 02 이 작품은 과장법(①), 반복법(②), 열거법(④), 연쇄법(⑤)을 사용하고 있으나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03 화자는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너’(임)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왜 찾아오지 않는지 그 까닭에 대해 추측하면서 ‘너’(임)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너’(임)를 떠나보낸 것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화자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4 이 작품은 오지 않는 ‘너’(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해학적으로 나타낸 사실시조이다. 지배 계층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 05 화자는 오지 않는 ‘너’(임)에 대해 원망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②에는 소식마저 끊어진 채 밖으로만 다니는 임(남편)을 그리워하며 원망 속에서 기다리는 화자의 처지와 슬픔이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 ①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③ 우리 민족이 삶의 터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평화로운 삶을 소망하고 있다.
 ④ 어두운 저녁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며 인간 존재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⑤ 힘든 세상살이에서 오는 답답한 심정을 시원스럽게 풀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 있다.

활동 연구 문제

268~270쪽

01 ⑤ 02 ⑤ 03 ②, ⑤ 04 ④

- 01 중장에서는 ‘성 → 담 → 집 → 두지(뒤주) → 궤 → 쌍벽목 걸쇠, 금거북 자물쇠’ 등으로 공간을 점점 축소하며 연쇄적으로 나열하고, 여러 가지 자물쇠를 열거하고 있다. 이 소재들은 모두 임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임이 오지 않는 상황을 과장하여 추측하며, ‘너’(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해학적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02 이상화된 자연물을 활용하거나 충(忠), 효(孝)와 같은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주로 양반 계층이 창작한 평시조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 03 이 작품은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였고, 다소 과장되면서 해학적인 표현으로 화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작가는 양반보다는 서민 계층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04 ‘양반 삼 형제’는 흰 창옷에 관을 쓰고, 남색 껌자에 복건을 쓴 것으로 보아 양반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들 중 두 명은 언청이이고, 다른 한 명은 입이 빠졌어진 외모를 하고 있으며, 막내인 ‘도련님’은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는 등 양반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양반들이 조롱과 풍자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말뚝이’는 양반들을 풍자하는 주체이다.
 ② ‘양반 삼 형제’는 풍자의 대상이다.
 ③ ‘말뚝이’는 서민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⑤ ‘양반 삼 형제’는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다.

② 흥보전(작자 미상)

작품 감상 02

272~277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④ 05 ⑤
 06 ② 07 ⑤ 08 ⑤ 09 ②

- 01 이 작품과 같은 판소리계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비범한 영웅이 아닌 구체적인 생활 공간에서 살아 숨 쉬는 현실적이고 평범한 인물이다.

02 이 작품에서 족벌주의에 대한 동요가 일어났음을 판단할 만한 단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돈으로 자신의 형벌을 대신하는 상황이나 홍보처럼 돈을 벌기 위해 매품팔이를 하는 등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만연한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고을 좌수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매품팔이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형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회임을 드러낸다.
- ③ 홍보는 매품팔이를 해서 생계를 이어 갈 정도로 극도의 가난을 겪고 있는 몰락한 양반이다.
- ⑤ 지배 계층은 죄를 지어도 돈으로 죄값을 치르는 등 당시의 부패한 사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03 홍보가 자신의 심정을 사물에 이입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볼기 구실 들어 보소.”는 판소리계 소설임을 알 수 있는 구절로,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 04** ㉠의 앞의 ‘얼씨구 즐겁도다’로 보아 홍보는 모처럼 집에 돈을 가지고 가게 되어 의기양양하게 행동하고 있다.
- 05** 홍보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매품팔이를 해서 돈을 마련하려고 한다. 홍보의 자식들은 철없이 그런 홍보에게 갖고 싶은 것을 사 달라고 한다. 하지만 홍보보다 돈을 받기는 홍보 아내의 반응은 확인할 수 없다.
- 06** 홍보가 “고의 벗은 놈이 어디다 차게야?”라고 말한 것은 고의도 벗고 있을 정도로 어린아이인데 철병이나 겔옷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다. ‘개 발에 편자’는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의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이다.

오답 풀이

- ① 대보름날 개에게 음식을 주면 여름에 파리가 많이 꼬인다고 하여 개를 굶긴다는 뜻으로, 남들은 다 잘 먹고 지내는 명절 같은 날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개는 도토리를 먹지 아니하기 때문에 밥 속에 있어도 먹지 아니하고 남긴다는 뜻에서, 따돌림을 받아서 여

럿의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없는 개살구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7 홍보의 자식들은 매품을 팔러 가는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갖고 싶은 것을 사 달라고 조른다. 이를 듣고 홍보는 매를 맞게 될 자신의 볼기를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로 아느냐고 말한 것이다.

08 홍보는 매품을 팔기 위해 병영에 모인 사람들의 가난 자락을 듣고 이들이 자신보다 더 가난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매품팔이를 포기하고 돌아온다.

오답 풀이

- ①, ④ 홍보 아내는 매품을 팔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을 반기고 있다.
- ② “마음만 옹게 먹고 의롭지 않은 일 아니하면 장래 한 때 볼 것이니 서러워 말고 살아나세.”라는 홍보의 말을 통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 ③ 김딱직은 매품을 팔기 위해 자신의 가난을 자랑할 뿐 홍보를 부러워하고 있지 않다.
- 09** 병영에 모인 사람들끼리 누가 더 가난한지를 자랑하는 장면은 조선 후기 서민들의 가난한 생활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당시 조선 사회에 빈부 격차가 극심했던 사회상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활동 연구 문제

» 278~280쪽

01 ⑤ 02 ④ 03 ②

01 이 작품은 착한 홍보가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 복을 받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홍보의 일생을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02 가난한 홍보가 돈을 벌기 위해 좌수의 벌을 대신 받는 모습을 통해 돈으로 자신의 벌을 해결하는 물질주의적 가

치관과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부정부패한 관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03** 이 작품은 판소리로 구전되던 것이 소설로 정착하게 된 판소리게 소설이다. 따라서 산문이지만 4음보 연속체가 나타나 리듬감이 느껴지고, “이놈 아주 거기서 계정을 먹더니라.”와 같이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하지만 독백 형식으로 서술자가 주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절명시(황현)

작품 감상 03

282~283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⑤ 05 ③
06 ②, ③

- 01** 이 작품은 1910년 국권이 피탈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창작되었으며,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한문 문학의 양상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하지만 자연이나 사물을 먼저 묘사한 후 화자의 감정을 제시하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 02** ‘맥수지탄(麥秀之嘆)’은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 작품은 작가가 1910년 국권 피탈의 소식을 듣고 침통한 심정으로 지은 한시이다.

오답 풀이

- ①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②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孝)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이다.
③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된다는 말이다.
④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 03** ①은 우리나라를 표현한 것으로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②의 ‘뺑’은 음식, 먹을 것을 표현한 대유법이다.

오답 풀이

- ①, ⑤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③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④ 역설법,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 04** ‘글 아는 사람’, 즉 지식인 노릇을 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국권 피탈의 상황이 생긴 ‘오늘’과 같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표현한 것이다.

- 05** 이 작품의 화자는 지식인으로서 일제에게 국권이 피탈된 상황의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나라 잃은 슬픔의 정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③으로 화자는 흥시를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고려가 멸망한 것을 슬퍼하고 있다.
② 화자는 고려가 망해 없어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④ 화자는 일제 강점기의 상황에 시가 쉽게 씌이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지식인으로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주권 상실의 고통과 울분을 표현하고 있다.

- 06** 화자의 비통한 심정이 이입된 대상은 ‘새’(㉠)와 ‘짐승’(㉡)으로, 화자는 이들이 자신의 심정처럼 슬피 운다고 표현하고 있다.

활동 연구 문제

284~286쪽

01 ④ 02 ④ 03 ①

- 01** <절명시>의 화자는 국권이 피탈되자 지식인으로서 올바른 처신과 도리를 생각하며 순절하기로 결정하고 이 시를 지었다.

- 02** 화자는 ‘새, 짐승, 강산’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국권을 잃은 슬픈 정서를 표현하였다.

- 03** <황현전>과 <절명시>의 내용으로 보아 황현은 나라를 위해 순절하겠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글만 읽고 어두운 현실을 외면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①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평가 문제

289~291쪽

- 01 ⑤ 02 **예시 답안**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였고, 어려운 한자어보다는 우리말로 표현한 점으로 보아 이 작품의 작가는 평민 계층일 것이다. 03 ② 04 ③
- 05 ① 06 ① 07 ③ 08 ③
- 09 **예시 답안** (가)의 표면적 주제는 '형제간의 우애'나 '권선징악'이지만, 이면적 주제는 '빈부의 갈등'이다. 이와 같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은 중세의 가치관과 근대의 가치관이 공존하는 특징을 지닌다. 10 ⑤ 11 ④ 12 ②

- 01 (가)와 (나)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행기의 문학으로, 이 시기에는 봉건 질서가 무너지면서 작자층이 양반에서 중인, 평민으로 확대되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시조 중에서 사설시조이고, (나)는 한시에 해당한다.
- ② (가)는 사랑하는 임이 곁에 없는 상실감을, (나)는 국권을 잃은 상실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③ (가)는 우리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나)는 한문으로 창작되었다.
- ④ (가)는 사설시조로 우리나라 고유 갈래인 시조에 해당하고, (나)는 중국의 한시가 건너온 것이다.

- 02 (가)는 사설시조로, 평민들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풍자와 해학이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 표현 등을 근거로 들어 작가가 평민 계층임을 서술한다.

채점 기준	배점
근거를 2가지 이상 적절하게 제시하였으며,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6점
근거를 1가지만 적절하게 제시하였으며,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4점
근거를 1가지만 적절하게 제시하였으며,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 03 '새'와 '짐승'이 슬피 울고, '강산'이 찢그린다고 표현한 것은 국권을 빼앗긴 고통을 화자뿐 아니라 자연 또한 느낀다고 하여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것이다.
- 04 작가가 죽음을 택한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는 오히려 국권을 빼앗긴 상황에 대해 책임을 느껴 행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05 화자는 초장에서 '너'가 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 까닭이 무엇인지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㉓는 화자가 '너'에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너'가 화자에게 오지 못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 06 (가)와 (나)는 <홍보전>이고, (다)는 <봉산탈춤>, (라)는 <누항사>이다. <홍보전>에는 매품을 팔 정도로 평민들이 가난하게 살았으며, 자신의 죄를 돈으로 해결하는 풍조가 나타나 있다. <봉산 탈춤>에는 양반을 희화화하는 말쑤이의 말을 통해 지배 계층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등 평민 의식의 성장을 볼 수 있다. <누항사>에는 전란 이후 피폐해진 현실 속에서 양반 계층이 분화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즉, 세 작품 모두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나타나 있다.

- 07 (가)의 홍보가 매품을 팔지 못한 까닭은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다. 병영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가난 자랑을 하여 매품을 파는 순서를 정하기로 했는데,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순서가 언제올지 아득하여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 08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동생들을 꾸짖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자식들의 이러한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것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점입가경(漸入佳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한자 성어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 ② 지록위마(指鹿爲馬):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름.
- ④ 우유부단(優柔不斷):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음을 이름.
- ⑤ 아전인수(我田引水):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름.

- 09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 사회는 중세의 봉건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근대적 가치관이 등장하게 된다. <홍보전>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중세 시기

의 유교적 가치관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조선 후기의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가)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 이 시기의 문학사적 특징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8점
(가)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를 적절하게 제시하였으나, 이 시기의 문학사적 특징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	4점
(가)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이 시기의 문학사적 특징만 대략적으로 서술한 경우	2점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는 -1점을 적용함.	

- 10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다가 변명하는 것은 상황을 잠시 무마하거나 돌려 말하여 또다시 양반을 희화화하는 것이지 양반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11 ㉠은 극심하게 가난하여 집이 좁은 상황을 과장적으로 표현하여 해학적인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12 ‘목득’은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귀신인 ‘목두기’를 말한다. 따라서 ㉠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도 자기 이외의 그 누구도 매움을 팔 수 없다는 뜻이다.

(4) 근현대 문학

1 초혼(김소월)

작품 감상 01

294~295쪽

01 ㉠ 02 ㉠ 03 ㉠ 04 떨어져 나가 앓은 산 위 05 ㉠

01 이 작품은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와 같이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직설적이고 강렬한 감정의 표현이 전통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02 5연에서 ‘부르다가 내가 죽을’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임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가 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화자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4연에서 하늘과 땅 사이가 멀다고 하는 것은 이승과 저승 사이, 즉 화자와 ‘임’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03 서산마루는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를 뜻하는데 이 서산마루에 걸린 붉은 해는 저녁 무렵의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면서 화자의 슬픈 감정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북쪽이 아닌 서쪽 방향에 해당하므로, 북쪽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는 행위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1, 2, 5연에서 사랑하는 임을 부르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고복 의식에서 망자를 세 번 부르는 행위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

04 3연의 ‘떨어져 나가 앓은 산 위’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자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이다. ‘떨어져 나가 앓은’이라는 표현은 화자와 임 사이의 거리감을 느끼게 하며 고립과 단절의 공간임을 의미한다.

05 ‘돌’은 망부석을 뜻하는 것으로,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이 응축된 사물이다.

활동 연구 문제

296~298쪽

01 ㉠ 02 ㉠ 03 ㉠ 04 ㉠ 05 ㉠

01 이 작품의 화자는 지극한 슬픔과 그리움의 감정을 절규하며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2 화자는 사랑하는 임과 사별한 슬픔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임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며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을 격정적으로 표출하는 어조로 시를 읽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임과 사별한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격렬하게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03 이 작품은 민요조의 3음보 율격을 사용하여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04 <님의 침묵>은 시어 '그러나' 전후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즉, 임과의 이별로 인해 슬퍼하던 화자는 임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절망적 정서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아아'라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서 청각의 후각화가 나타나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③ '-느니라'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5 <초혼>의 화자는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게 된 슬픔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므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 만세전(염상섭)

작품 감상 02

» 300~305쪽

01 ⑤ 02 ① 03 ⑤ 04 ⑤ 05 ④
 06 ⑤ 07 ⑤ 08 ② 09 **예시 답안** 조선
 을 탈출하듯 동경으로 떠나는 '나'의 모습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도피하는 당시 지식인의 한계가 드러난다.

01 이 작품은 서술자인 '나'가 일본인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와 관련한 '나'의 생각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02 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는 조선인들을 '대만의 생변'과 비교하며 멸시하는 일본인들의 말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④ 소극적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지는 않다.

03 '망국 백성'은 '나'가 현재 자신의 처지를 나타낸 표현일 뿐 낯잡아 보는 표현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요보'는 일본인이 한국인을 낮추어 부르던 호칭이다.
 ② '젊은 놈'은 젊은이, 젊은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③ '생변'은 대만의 고산족 가운데 야생 생활을 하는 종족을 낮추어 부르던 이름이다.
 ④ '궐자'는 '그'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04 (다)~(라)에서는 서술자인 '나'의 내적 독백에 의해 일본인들의 대화 내용이나 현재의 상황 등에 대한 '나'의 판단과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④ 인물 간의 갈등을 묘사한 장면은 없다.

05 (다)~(라)에 드러난 대화를 통해, 대화에 참여한 두 일본인의 특성과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 일제가 조선을 억압하는 당시의 현실 상황이 드러난다. 또한 일본인들이 조선 노동자들을 속여 일본으로 팔아넘기는 교활한 행각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인들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평가는 알 수 없다.

06 '표독한 위인'은 '촌뜨기'를 피기 위해서 본론을 바로 말하지 않고 빙빙 돌리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07 (바)에서 궐자의 말에 의하면 남쪽은 내지인이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거처를 찾아 떠나는 조선 사람이 늘어났고, 그 사람들이 일본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쪽 지역에서 조선 노동자를 모집하기가 쉬운 이유는, 일본인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긴 조선 사람들

이 살기 어려워지자 일본 노동자로라도 떠나려 하기 때문이다.

- 08** <보기>의 ‘나’는 현 상황에서 자신의 유학 생활과 학업의 의미, 이후의 삶에 대해 의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나’는 소작농들의 궁핍한 삶의 모습을 믿지 못할 정도로 현실 감각이 없었기에,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의 현실에 대해 예전보다 관심을 갖게 된 것임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④ 학업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나, 학업을 중단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 09**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조선 전체가 공동묘지 같다고 생각하며 탈출하듯 다시 동경으로 떠난다. 지식인으로서 당시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점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실천적 행동을 하기보다는 탈출하듯 일본으로 떠나는 모습에서, 현실 문제에서 도피하는 당시 지식인의 한계가 드러난다.

채점 기준	배점
줄거리 부분에서 근거를 인용하여 ‘나’의 한계에 대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나’의 한계에 대해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줄거리 부분에서 근거를 인용하지 않은 경우	3점
‘나’의 한계에 대해 모호하게 서술한 경우	1점

활동 연구 문제

» 306~308쪽

01 ③ **02** ① **03** ③

- 01** 이 작품에서 ‘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탈출하듯 동경으로 떠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은 나약하고 소극적인 지식인으로서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지식인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 02** 당시 작가의 유학 생활과 작품을 연결해서 감상하는 것은, 작품과 작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표현론적 관점’으로 감상한 방법에 해당한다. ②~⑤는 모두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외적 현실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반영론적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배경지식 더하기 **문학 감상(비평) 방법**

문학 작품을 감상(비평)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작품 내부 요소만으로 접근하는 내재론적 관점(절대주의적 관점)과 작품 외부 요소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외재론적 관점이 있다.

외재론적 관점은 다시 작품과 작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표현론적 관점, 작품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반영론적 관점, 작품과 독자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효용론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 03** ‘나’가 형사에게 조사받는 장면은 당시 식민지 조선의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사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아내의 병환은 ‘나’로 하여금 동경에서 서울로 오게 만드는 이유가 되며, 이 과정에서 ‘나’의 자각 과정이 드러나게 된다.

③ 백록담(정지용)

작품 감상 03

» 310~311쪽

01 ① **02** ⑤

- 01** 화자는 현재 걸어서 등반하느라 지친 상태이며, 이 과정에서 말이나 소를 보게 된 것일 뿐 말을 타고 등반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9연의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포진’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백록담에 얼굴을 비취 보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가 백록담과 동화된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02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는, 가재도 기지 않을 만큼 맑고 깨끗한 백록담의 물에 하늘이 비친 것을 묘사한 것이다. 이 시를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감상한다면, ‘백록담’은 우리 민족의 맑고 깨끗한 정기와 정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활동 연구 문제

» 312~314쪽

01 ⑤

02 ②

03 ③, ⑤

04 ③

01 이 작품에서는 평서형의 종결 어미가 반복되고는 있지만, 이를 특정한 서술어가 반복되어 리듬감을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2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포긴 백록담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좋다 기도조차 잊었더니라.’에서 백록담의 깨끗하고 맑은 모습에 취해 동화가 된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흐린 백록담에 실망한 모습은 찾을 수 없다.

03 이 작품의 작가는 한라산을 등반하는 과정에서 만난 자연과 백록담의 모습을 감각적인 언어를 통해 아름답고 참신하게 표현하였다. 한편 이 시를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감상한다면, 화자가 고된 등반 과정을 이겨 내고 백록담에 오르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04 <광야>의 3연에서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는 표현을 통해 문명과 역사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다. 문명의 미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4 광장(최인훈)

작품 감상 04

» 316~321쪽

01 밀실

02 ⑤

03 ④

04 ⑤

05 ③

06 ⑤

07 ②

08 ③

09 ③

10 ②

11 ②

12 예시 답안

명준이 겪었던 남북한의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한다.

13 ②

01 이 작품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을 ‘밀실’에 비유하고 있다. 명준은 이러한 ‘밀실’이 남한에는 있으나 북한에는 부재한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인 ‘밀실’만을 치장하는 남한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02 (가)에는 포로 송환 위원회 앞에 선 주인공 명준이 북한의 설득을 듣고도 중립국을 선택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주로 북측 장교가 이명준을 설득하는 대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 사건을 더욱 생생하고 사실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03 북측은 여러 제안을 하며 이명준을 회유하고 있으나 북측을 선택하는 것이 의무라고 하지는 않았다.

04 이명준은 남한에서의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월북을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망을 하게 된다. 즉, 이명준은 자신이 기대했던 이상적 사회가 남북한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중립국을 선택한 것이다.

05 남측 설득자는 친근함을 강조하며 친구 또는 형처럼 대하려 하고 있다. 계급의 차이를 이용해 위압적으로 대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06 이 작품에서 주인공 이명준은 ‘중립국’이라는 대답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남측과 북측을 모두 경험해 본 주인공이 양쪽의 문제점을 모두 인식했기 때문에, 남북이 주장하는 이상적 이념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이명준은 양쪽 체제에 모두 실망하여 중립국을 선택하고 있다.

② 이명준은 이미 남측과 북측의 어떠한 회유에도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이명준이 중립국을 택한 이유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상황 때문이지,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은 아니다.

④ 논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판단을 하기에는 양측 모두에 실망하였기 때문이다.

07 [A] 부분은 북측 천막에 있는 이명준이, 남측 천막에 있는 경우를 가정하는 장면이다. 이후 남한과 유엔 측이

이명준을 설득하고 이명준은 이번에도 북측에 했던 것처럼 ‘중립국’만을 대답하는 장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08 문맥상 ㉠은 이명준의 조국(남한)을, ㉡은 그 조국에 존재하는 과도기적 문제점(빈부 격차, 정치적 혼란 등)과 모순을 의미한다.

09 ‘마술사’는 남북한의 권력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들은 이상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상만 심어 주었을 뿐 실현하지는 못했다.

오답 풀이

㉢ 바다와 한 잔의 물 사이에 놓인 골짜기는 그만큼 둘 사이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상과 현실의 먼 거리를 뜻한다.

10 ㉠의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중립국을 선택한 것에서 오는 통쾌함이나 후련함으로 볼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중립국을 선택한 것에 대한 조소와 자조로 볼 수 있다.

11 ㉡은 ‘그들’이 ‘바다의 난파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유에 해당한다. 그들(권력자들)은 지식인들 중에 이념의 허상을 알아챈 자들을 다른 사람들과 차단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12 작품 전체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무서운 것’은 주인공 이명준이 겪은 남북한의 부정적인 현실(이념의 허상 등)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다의 난파자들을 감옥에 가둔다고 했으므로, 남북한의 권력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이명준과 같이 진실을 알게 된 지식인을 가리킨다.

01 주인공 이명준은 남북한의 체제를 모두 경험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직접 느꼈기 때문에 남북한 어디로도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명준이 남북한 권력자들이 차지한 자리를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02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남측의 설득 내용 중 하나이다.

03 이 작품에는 중립국으로 송환되는 한국인 포로에 대해 귀국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 이념 대립으로 갈라진 남과 북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 중립국으로 가는 모습을 통해, 당시의 전쟁 포로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04 <보기>는 이명준을 통해 작가의 비판적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내용이며, 이는 곧 이념 논쟁과 자신들의 체제 유지에 매달려 여러 가지 모순을 드러냈던 남북한 모두에 대해 비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원고지(이근삼)

작품 감상 05

326~335쪽

01 ③	02 ①	03 ①	04 ④	05 ③
06 ④	07 ③	08 ④	09 처: 어머니!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 막대기에 감긴 철쇄를 줄줄 끌어다 교수 허리에 감아 준다. / 처: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요.	
10 ④	11 ②	12 ②	13 ④	14 ③
15 ⑤	16 ②	17 ②	18 ④	19 ⑤
20 ④	21 ③			

01 앞부분 줄거리에 ‘장녀’가 다른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다. 이는 등장인물이 동시에 해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관객들이 극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거리감을 유지하며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활동 연구 문제

322~324쪽

01 ② 02 ② 03 ⑤ 04 ③

02 신문의 내용에서 동대문이 무너진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부조리하고 해괴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대 사회를 풍자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지, 과거 왕조와 단절된 현대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② 이 씨가 계속 당선된다는 내용은 당시의 부패한 정치적 상황을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신문의 내용이 삼 년 전과 비슷한 것, 신문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점에서 현대인의 무의미하고 반복되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 제목과 ‘착취사, 악마사’라는 출판사 이름은, 힘없는 개인이 처한 노동 현실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과장된 내용이지는 하지만, 남편이 아내한테 매를 맞거나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기사의 내용을 통해 해체되는 가족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03 이 작품에서 교수는 스스로 출세하기 위해 명예욕에 사로잡힌 탐욕스러운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희생당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04 ㉠은 교수의 말에 대한 처의 대답이다. 삼 년 전 신문과 오늘 신문의 내용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처의 모습을 통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대인을 풍자하고 있다.
- 05 이 작품은 사실적인 내용보다는 실험적이고 풍자적인 장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 06 처는 교수에게 대할 때와 달리, 자식들 앞에서는 초라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다.
- 07 (라)에서는 ‘교수’가 철쇄를 매고 있다. ‘교수’가 맨 철쇄는 가장으로서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의미한다. 즉, ‘철쇄’는 현대인들을 구속하는 현실의 중압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08 ㉠은 교수가 시계 소리만 듣고 밤 여덟 시를 아침 여덟 시로 착각했다는 내용이다. 시계 소리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교수의 모습에서, 반복되는 노동에 시달려 강박 관념에 빠져 있는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09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사와 실제의 모순’은 (바)에 등장하는 처의 말과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처는 교수를 걱정해 주는 말을 하면서, 교수에게 철쇄를 감는다. 이것은 말로는 교수를 걱정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압박과 구속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대사와 실제의 모순을 보여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0 이 작품에는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특별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11 플랫폼 방은 공간이 다름을 상징하기 위한 장치이며, 자녀의 방으로 설정되어 있다.

12 [A]에서는 교수 부부의 일하는 모습과 자식들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 교수가 붓을 놓으며 미소를 지은 것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백구십 자 원고지를 통해 잠시의 해방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⑤ 감독관은 수시로 등장해서 교수와 처를 감시하고, 그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회초리를 휘두른다. 이 장면에서는 교수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라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13 교수라는 직업은 일반적으로 학문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등,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교수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물질적이고 속물적 가치를 지향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14 이 작품에 등장하는 천사는 교수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과거의 꿈, 정열, 희망 등을 뜻한다. 이는 교수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다가, 교수가 백구십 자 원고지를 보고 잠시 여유를 가지면서 외부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5 ‘장녀’는 아버지(교수)가 늘 힘들게 노동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며, 지쳐 있는 이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6 ㉠에는 감독관에 의해 원고 작업을 독촉 받은 교수의 표정이나 상태가 나타나야 한다. 천사가 떠나 버리고 망연

자살한 상태에서 감독관의 독촉까지 받았기 때문에 교수는 비참한 표정을 짓는 것이 어울린다.

17 이 작품은 교수 부부와 자식들의 모습을 통해 기계적인 노동에 시달리는 현대인에 대한 풍자와, 바람직하지 못한 가족 관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현대인들이 일에 몰두하지 못하는 모습은 풍자의 대상이 아니다.

18 이 작품에 등장하는 감독관은 회초리를 휘두르며 교수와 처에게 노동을 강요한다. 이는 현대인들이 기계적으로 노동을 하게 만드는 현실의 억압과 부담감을 상징한다.

19 처는 교수가 번역한 원고를 돈으로 바꾸어 오며, 자식들은 부모가 힘들게 노동해서 번 돈을 당연한 듯 요구한다. 이런 관계와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자식들에게 돈을 나눠 주고 나서 보따리가 텅 비게 연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오답 풀이

③ (타)에서는 부모가 힘들게 벌여 온 돈을 자식이 받아 나간 후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인간적 유대감이 결여된 가족의 모습을 보여 주는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경쾌한 느낌의 음악을 삽입하여 풍자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객들에게는 낯선 느낌을 준다.

20 교수가 읽는 신문에는 삼 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건이 실려 있다. 이는 현대인의 삶이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21 ㉠은 현실 감각을 상실한 교수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음 날의 일정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풀이

⑤ ㉠과 ㉡은 모두 현실의 압박을 느끼며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만 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

01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은 ‘교수, 처, 장녀, 장남’과 같이 호칭으로만 제시되는데, 이것은 현대인의 익명성과 유대감의 상실 등 현대 사회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02 신문 기사의 내용이 해괴하고 황당한 것은, 부조리하고 모순된 당시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이다.

03 〈보기〉는 대사와 행동이 모순되는 부분이다. 처는 교수를 걱정하는 듯이 말을 하지만 실제 행동은 교수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철쇄는 사회와 가정으로부터의 구속과 책임감, 노동의 중압감 등을 상징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를 교수에게 갈아입히는 행동은 교수에게 중압감을 없어 주는 것과 같다. 그러나 처가 교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04 이 작품은 사회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의 상실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 정치적인 억압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6 벼(이성부)

작품 감상 06

340~341쪽

01 ④ **02** 죄도 없이 죄지어서 **03** ⑤ **04** ①
05 ⑤

01 이 작품에서는 주로 평서형 어미가 사용되었으며, ‘~보아라.’에서는 명령형 어미가 사용되었다. 청유형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2연의 ‘서로가 서로의~보아라. / 죄도 없이 죄지어서~보아라.’와 3연의 ‘벼는 가을 하늘에도~다스릴 줄 알고 / 바람 한 점에도~덮는다.’ 등에서 대구가 드러난다. 이를 통해 시적 대상인 벼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이 작품은 시적 대상인 ‘벼’의 생장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활동 연구 문제

336~338쪽

01 ④ **02** ① **03** ⑤ **04** ⑤

02 이 작품에서 민중이 겪는 불합리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시구는 ‘죄도 없이 죄지어서’이다.

03 ‘죄도 없이 죄지어서’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민중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지, 민중(벼)이 실제로 죄를 지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곧 극복한다.’는 이 작품에 드러난 벼의 속성으로 볼 수 없다.

04 ‘계몽적’은 가르쳐서 깨우쳐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작품에서 민중은 삶의 순리를 따르면서도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계몽적인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05 <보기>에는 ‘누룩’이 물과 만나 발효되고 삭아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이는 <벼>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바치고 고난을 이겨 내는 ‘벼’의 속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의 시가 일정한 음보율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벼>와 <보기>에서는 모두 대상을 의인화하여 그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의문형의 종결 어미는 <보기>에만 쓰였다.
- ④ <벼>에만 계절과 관련된 대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활동 연구 문제

» 342~344쪽

- | | | |
|------|----------------------|------|
| 01 ④ | 02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 03 ④ |
| 04 ② | 05 ④ | |

01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와 ‘제 몸의 노여움을 댄다.’에서 드러나듯이 ‘벼’는 서러움과 노여움을 다스릴 줄 아는 존재이다. 이것은 서러움과 노여움을 다스리고 승화시켜 더욱 성숙해지는 민중들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분노와 노여움을 폭발시키는 것은 민중의 속성으로 보기 어렵다.

02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라는 시구에서, ‘벼’의 끈질긴 생명력이 잘 드러난다.

03 1970년대는 군부 독재 체제하에 경제 성장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덕분에 10년 만에 수출 100억 달러라는 성과

를 거두었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이 희생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최악의 작업 환경에서 병에 걸려도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묵묵히 일했다. 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신이 희생당하는 줄도 모르고 희생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이라는 시구는 그러한 시대 상황에서 희생당한 민중들이 서로 더욱 연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04 <눈>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중심 내용을 전달한 부분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짧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에서 알 수 있듯이, ‘짧은 시인’을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
- ③ 1연과 3연에서는 ‘눈은 살아 있다’를, 2연과 4연에서는 ‘기침을 하자’를 반복하고 변형함으로써 시상을 확장하고 있다. 즉, 같은 문장에 점차로 문장 요소들을 덧붙여 의미를 뚜렷하게 하고 점층적으로 전개시키고 있다.
- ④ 순수한 생명력과 가치를 의미하는 ‘눈’과, 불순하고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가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하자’라는 청유형 어미를 반복하여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행동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05 <눈>과 <벼>의 화자는 각각 자연물 ‘눈’과 ‘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7 내 여자의 열매(한강)

작품 감상 07

» 346~351쪽

- | | | | | |
|------|------|------|------|------|
| 01 ② | 02 ② | 03 ③ | 04 ① | 05 ③ |
| 06 ① | 07 ② | 08 ④ | 09 ② | |

01 (가)~(라)는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물 간의 갈등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02 ㉠은 어머니의 스웨터로, 생명의 근원인 모성과 원초적인 따스함을 느끼게 해 주는 소재이다.

03 (바)의 내용으로 보아, 아내가 고향을 벗어나 처음 도시에 왔을 때는 도시의 화려한 모습에 만족을 느꼈었다.

04 [A]에서 아내는 자신이 예전부터 늘 행복하지 못했고, 달아나고 싶어 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아내는 자신의 고향에서도, 그곳을 떠나 정착한 도시에서도 불행을 느꼈으며, 그곳이 어디든 답답한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05 ㉠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내장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아내가 이미 식물로 변해 가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06 이 작품에서 식물이 되어 가고 있는 아내는 이전보다 오히려 주변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07 아내가 식물로 변한 것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속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내의 생각이 형상화된 것이다. (차)에서 아내가 자신의 죽음과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통해, 일회적 삶에 대해 희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식물이 된 아내가 열매를 남김으로써 자연 순환적인 생명성을 소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8 <보기>에서 식물이 된 아내가 쏟아 낸 ‘열매’는 생명이 새롭게 돌아날 수 있도록 하는 존재이며, 생태계의 순환적 삶을 이어 가는 고리이다. 이것은 생태계의 자연 순환적인 생명성을 소망하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교과서에 수록된 7장 부분은 ‘아내’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보기>는 ‘남편’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아내’와 ‘남편’의 서술 시점이 혼용되고 있다.
- ② ‘아내’가 <보기>에서 완전한 식물이 된 것은 맞지만, 베란다 화분에 있다가 잎이 모두 떨어진 것으로 보아 콘크리트와 철근을 뚫는 큰 나무가 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이제 아내의 몸에는 한때 두 발 동물이었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다.

⑤ 작품의 결말 부분인 <보기>의 서술자는 작품 안에 등장하는 ‘남편’이다.

09 ㉠은 아내가 아파트를 뚫고 높이 자라는 꿈을 자꾸 꾸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아내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삶과 관련이 있다. ㉡은 어머니의 스웨터가 자꾸 생각나는 것인데, 이는 모성성과 혈육의 정에 대한 그리움과 관련이 있다.

활동 연구 문제

352~354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⑤ 05 ③

01 ‘아내’는 식물이 된 후 베란다 화분에서 자라며 ‘남편’의 보살핌을 받았다.

02 죽은 아내는 ‘열매’를 남겼고, 남편은 그 열매를 심으면서 ‘봄이 오면 아내가 다시 돌아날까?’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작가는 생태계의 순환적인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03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의사는 아내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초음파 기계로 위, 간, 자궁, 콩팥을 들여다보며 ‘노말’이라고 말하였다.

04 아내가 꾸는 꿈은 베란다나 콘크리트, 철근으로 대표되는 도시 문명을 뚫고 높이 자라는 것이므로, 도시 문명의 삭막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5 <보기>의 내용은, 작가가 책을 쓰는 것은 질문의 과정이었으며, 그 질문을 독자들과 나눠 가지며 함께 고민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즉 작가의 문제의식을 독자와 함께 공유할 때, 문학 작품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뜻이다.

오답 풀이

⑤ <보기>의 내용은 작가의 질문에 대해 독자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독자가 직접 소설을 창작하기를 권유한 것은 아니다.



소단원 평가 문제

360~366쪽

01 ②	02 ②	03 ⑤	04 ⑤	05 ⑤
06 ③	07 ①	08 ④	09 ②	10 ②
11 ③	12 1연: ㉠, 2연: ㉡, 3연: ㉢, 4연: ㉣	13 ④		
14 ④	15 ④	16 ②	17 ①	
18 [예시 답안] '나'가 완전히 식물로 변하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 01 1, 2, 5연에서 '-이어!'라는 영탄적 어조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슬프고 절실한 감정을 부각하고 있다.
- 02 <보기>는 김소월 시에 나타난 전통적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가)는 망부석 설화, 초혼 의식의 전통적인 소재를 이용하였으며, 이별의 정한을 민요적 3음보 율격을 통해 노래하였다. 하지만 토속어와 방언은 찾아볼 수 없다.
- 03 ㉠에서는 화자가 있는 땅(이승)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하늘(저승) 사이가 너무 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살아 있는 '나'와 죽은 '그대' 사이의 절망적인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다.
- 04 (나)에서 서술자 '나'는 조선인을 하찮게 여기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들으며 귀에 거슬려 하고 있다.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서술자 '나'는 시대 상황을 대변하는 인물로 볼 수 있고, '나'가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 인물이 문제적 사건을 겪어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나'의 시선에서 보고 들은 것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작가가 직접 개입하여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촌뜨기 선생'은 일본인이므로 조선의 상황을 대변하는 인물로 볼 수 없다.
- ③ 주인공 '나'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대변하는 인물이지만, 작가가 허구적으로 만든 인물이다.
- ④ (나)는 현재 시제로 서술되어 있어, 일본인들의 대화 내용과 그것을 듣고 있는 '나'의 심리가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 05 '토설하다'는 '숨겼던 사실을 밝히어 말하다.'라는 뜻이다.
- 06 '백화'는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자작나무를 뜻하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 ①, ② 뻗꼭채꽃을 비유한 표현
- ④ 암고란 열매를 비유한 표현
- ⑤ 죽은 자작나무(백화)를 비유한 표현
- 07 (나)에서는 설득자와 이명준의 대화를 통해 작중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08 설득자가 남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의 제안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 09 ㉠을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현실 아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타인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표현한 것이다.
- 10 '이백 자 원고지'는 교수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규격화되고 반복적인 일상의 틀을 의미한다.
- 11 (다)에서는 서술자인 '나'(아내)가 편지의 형식으로 마음 속에 담아 두었던 말들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있으므로, 독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② (나)는 벼의 성장과 수확 과정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면서 민중의 속성을 빗대어 표현하였다.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④ (다)의 앞쪽 내용을 과거 사건으로, 뒤쪽 내용을 현재 사건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것을 통해 과거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자신이 변해 가는 모습과 미래에 대한 예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2 (나)의 1연은 벼가 서로 기대고 이웃들에게 의지한다는 내용이므로 ㉠과 어울린다. 2연은 벼가 서로를 묶고 더 튼튼해지며 억울한 상황도 이겨 낸다는 내용이므로 ㉡와 어울린다. 3연은 서럽고 노여운 마음을 다스리는 내용이므로 ㉢와 어울리며, 4연은 벼가 떠나갈 때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것을 주고 간다는 내용이므로 ㉣와 어울린다.
- 13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 보는 것은 ㉠과 관련되나, 그 주제를 동시대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보는 것은 ㉡와 관련

련된다.

- 14 ‘애벌레’는 자연의 순환을 나타내는 개체 중 하나이므로, 아내의 과거 삶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⑤ ‘해’는 식물이 되어 가는 아내가 지향하고 필요로 하는 대상이다.
- 15 <보기>는 이 작품에 활용된 변신 모티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를 참고할 때, (다)의 ‘나’가 변신하는 것은 답답하고 폭력적인 현대 사회에서 벗어나 자연의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6 ㉠은 다른 조명은 모두 끄고 교수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관객들이 교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는 효과이다.
- 17 ㉡의 장면은 교수가 잠시 과거의 꿈을 떠올렸다가 감독관의 독촉으로 인해 다시 현실로 복귀하는 모습이다. 이때 교수는 비참한 표정을 짓는다. 이러한 교수의 상황에는, 꿈을 붙잡을 수도 없고,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노래한 ㉠의 내용이 어울린다.
- 18 [A]는 ‘나’가 자신의 상태를 예상하는 부분으로, 곧 생각할 수도 없게 되고 바람과 햇빛과 물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완전한 식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점 기준	배점
‘나’의 앞으로의 상태를 바탕으로 암시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나’의 앞으로의 상태를 바탕으로 암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3점
‘나’의 앞으로의 상태를 바탕으로 암시하는 내용을 모호하게 서술하였으며 한 문장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1점



대단원 평가 문제

371~376쪽

- 01 ③ 02 ③ 03 ⑤ 04 ⑤ 05 ②
06 ② 07 ④ 08 ① 09 ①
- 10 **예시 답안** 당시 사람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11 ④ 12 ⑤ 13 ① 14 ④
- 15 **예시 답안** 설득자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통쾌함, 가고 싶은 곳이 없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자조 16 **예시 답안** 주인공은 현재 서서히 식물로 변해가고 있는데, 꿈에서는 이러한 상태가 더 진전되어서 천장을 뚫고 높이 자란다. 이는 현대 도시문명을 뜻하는 베란다, 콘크리트, 철근 등을 뚫고 자라는 생명력의 발현을 통해 현대 문명의 삭막함을 극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다.

- 01 (가)는 고대 가요인 <공무도하가>, (나)는 고려 가요인 <청산별곡>, (다)는 조선 전기 시조이며, (라)는 가사이다. 시조와 가사는 4음보를 기본 율격으로 하지만 고려 가요는 3음보의 율격이 나타난다.

- 02 (나)는 고려 시대에 평민들이 부르다가 궁중 음악으로 흡수된 뒤 조선 시대에 한글이 창제되면서 문자로 기록된 고려 가요이다. 고려 가요는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삶의 애환, 부모의 사랑 등을 소재로 하여 소박하고 진솔한 평민들의 삶의 모습을 담아 내었다. 이 가운데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작품은 남녀상열지사라고 비판받기도 하였다.

오답 풀이

- ㉠ 차자 표기 방식으로 기록된 것은 향가이다.
- ㉡ 원시 및 고대 초기의 시가는 집단이 공유하는 정서를 담은 노래였으나 이후에는 개인의 고민이나 정서를 담은 작품이 창작되었다.
- 03 <보기>에서 ‘뿔버들’은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분신이자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의미한다. (라)의 ‘뿔화’ 역시 화자의 분신이자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의미한다.
- 04 ‘동풍(東風)’은 봄에 부는 따뜻한 바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바람이 불어서 쌓인 눈을 해친다는 것으로 보아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다.
- 05 (나)는 사랑하는 임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다)는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상실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한다고 볼 수 있다.

- 06 ‘주술’이란 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고 주문을 외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을 말한다. 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는 의도로 작품이 창작되고 불러졌을 때 주술적 성격을 지녔다고 말하는데, 이 글은 ‘기파랑’이라는 대상을 찬양하는 순수 서정시로 주술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 07 ㉠의 ‘눈’은 장애물, 시련, 역경, 부정한 세력 등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과 상반되는 부정적 대상이다. ㉡의 ‘서리’는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희어진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08 이 글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후대 영웅 서사 문학의 구조에 영향을 끼쳤다.

- 09 ㉢는 유화 부인을 물 밖으로 나오게 한 인물이지 어려움을 겪는 주몽과는 관련이 없다.

- 10 <보기>의 ‘나라를 세운 신령한 자취’라는 말과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할 따름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주몽 신화>는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 주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작품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작품의 역할을 서술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	3점
작품의 역할을 모호하게 서술한 경우	1점

- 11 (가)에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와 (나)의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피 묻은 그리움’ 등에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12 (나)는 벼의 생장에 따른 다양한 속성을 통해 이 땅을 살 아온 민중의 한과 공동체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하지만 벼를 수확하는 과정과 이를 통해 풍요로움의 가치는 드러나 있지 않다.

- 13 (가)는 6·25 전쟁 전후의 혼란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남한과 북한의 이념적 대립과 그 안에서 진실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제시한 작품이다. 1970년대 독재 정권의 상황은 이 작품과는 관련이 없다.

- 14 천사는 교수에게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 오기는 너무 늦었어요.’라고 말한다. 이는 교수가 절망적 현실에서 벗어나 과거의 꿈과 정열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15 주인공이 과도할 정도로 웃음을 터뜨린 이유는 설득자들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통쾌함과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중립국을 선택한 것에 대한 자조와 조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두 가지 이유를 각각 근거를 들어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으나 근거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한 가지 이유만 제시한 경우	1점

16 수행 평가 풀이 | 난이도 ★☆☆ |

평가 요소 문학과 시대 상황

채점 기준	배점
주인공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꿈의 의미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주인공의 현재 상황을 제시하였으나 꿈의 의미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주인공의 현재 상황이나 꿈의 의미를 모호하게 서술한 경우	1점

5 문학의 가치

(1) 문학과 삶의 다양성

① 다시 느티나무가(신경림)

작품 감상 01

» 380~381쪽

01 ⑤ 02 ② 03 ③ 04 예시 답안 세상
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볼 수 있기

- 01 이 작품의 화자는 현재 나이를 먹었으며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먼 상태에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의 확장으로 표면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가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현재 상황에 만족감을 느끼며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된다.

오답 풀이

- ③ 화자는 유년기를 지나 청·장년기를 거치면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들이 있음을 알고 의아해한다. 그러나 ‘이게 다 세상 사는 이치’라고 생각하며 일반적인 변화, 누구나 겪는 통과의례 정도로 여긴다.
- 02 이 작품의 화자는 ‘유년기 - 청·장년기 - 노년기’에 따른 느티나무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기 고백적인 어조로 삶을 돌아보며, 깨달은 바를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반면 느티나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찾아보기 어렵다.
- 03 이 작품에서 ‘느티나무’는 화자의 성찰을 유도하는 매개체로, 화자는 느티나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세상에 대한 인식 변화로 확장하여 깨달음을 얻고 있다. ③의 ‘촉’ 역시 화자에게 생명이 가진 경이로운 힘을 깨닫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 ① ‘물’은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의 소망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 ② ‘해당화’는 ‘당신’과의 약속을 상징하는 시어로,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④ ‘봄’은 화자가 소망하는 시기, 특히 통일의 시대를 의

미하는 시어로, ‘겨울’과 대립을 이루면서 화자의 소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역할을 한다.

- ⑤ ‘구름’은 자유로운 존재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면서 현실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04 이 작품의 화자는 느티나무가 다시 작게 보이는 경험을 통해 나이가 들고 병에 걸림을 인식하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인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는 사실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활동 연구 문제

» 382~384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③

- 01 느티나무가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에 화자는 잠시 의아해했을 뿐 자신이 성장하였기 때문이며 세상의 이치에 따른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상심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 02 화자는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의 자신을 성찰한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언급은 없다.
- 03 노년기의 화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느티나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으나, 유년기나 청·장년기를 그리워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04 <보기>의 작품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과 삶에 대한 회한을 노래한 시이다. 이 작품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자기반성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김 씨 표류기(이해준)

작품 감상 02

» 386~391쪽

01 ④ 02 ② 03 예시 답안 • 특정 공간에 갇혀서 고립되어 있다. • 타인을 경계하면서도 서로를 궁금해한다.
04 ① 05 ⑤ 06 ⑤ 07 a 짜장면 b 희망
08 ④ 09 ③

01 ‘앞부분 줄거리’로 보아 ‘남자’는 밤섬에 표류한 뒤 탈출을 시도하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 오리배에 보금자리를 두고 살아간다.

02 이 작품은 한강의 밤섬에 고립된 ‘남자’와 자신의 방 안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여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두 인물의 삶을 ‘표류’라는 단어를 사용해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여자’ 역시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되었다는 측면에서 표류했다고 볼 수 있다.
- ③, ⑤ 모험담이나 물 위에 떠서 표류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소통과 그에 따른 변화가 주된 내용이다.
- ④ ‘남자’는 태풍이 지나간 뒤 환경 관리원들에 의해 밤섬에서 끌려 나온다.

03 밤섬과 방 안은 각각 ‘남자’와 ‘여자’가 표류해 있는 장소로, 모두 외부와 고립된 공간이다. 이러한 두 인물은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소통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서로를 궁금해한다.

04 이 작품의 두 인물에게는 구체적인 이름이 있지만, 대부분 ‘김 씨’라는 성이나 ‘남자/여자’라는 성별을 활용하여 지칭하고 있다. 이는 등장인물의 익명성을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보편적인 것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익명성을 통해 타인에게 무관심한 현대인들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도 한다.

05 ‘여자’는 짜장면을 돌려보내는 ‘남자’의 모습을 망원경으로 지켜보며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이를 통해 ‘여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06 ‘배달원’은 무인도까지 배달을 요청한 ‘여자’와 어렵게 배달한 짜장면을 되돌려 보내는 ‘남자’에게 화가 나 있다. 또한 두 ‘김 씨’는 서로를 궁금해하면서도 직접 소통하지 않고 ‘배달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로 보아 ‘배달원’의 “막 애들할라 그러네?”라는 말은 두 사람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07 ‘여자’는 짜장면을 먹기 위해 농사까지 짓는 ‘남자’를 보고서 그에게 짜장면을 배달시켜 준다. ‘여자’는 짜장면을

먹으려는 ‘남자’의 행동을 섬에서 먹지 못하는 음식을 원하는 차원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에게 짜장면은 자신이 삶에서 처음으로 가져보는 소망과 목표로, 삶의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남자’는 짜장면을 돌려보냈으며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다.

08 (아)에서 ‘여자’는 자신의 불박이장을 비좁게 느끼면서 단절되고 고립된 삶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로 보아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사람은 ‘여자’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사)에서 ‘여자’는 짜장면 만들기에 성공하여 우는 ‘남자’를 보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눈물을 흘린다.
- ③ (차)에서 ‘남자’는 휴대 전화를 집어 들고 말을 걸고 있는데, 이는 ‘여자’와 소통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 ⑤ (자)의 ‘시선이 어느새 평온하게 잠긴다.’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가는 ‘여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09 짜장면은 도시에서 소외되고 좌절을 일삼던 ‘남자’에게 처음으로 목표가 된 대상이다.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남자’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활동 연구 문제

» 392~394쪽

- 01 ② 02 ⑤ 03 ⑤ 04 ③
- 05 ㉠ 구자명 씨 ㉡ 여성 (전체)

01 ‘남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밤섬에 표류하여 살고 있고, ‘여자’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하루 종일을 지낸다. 따라서 두 사람은 모두 특정 공간에 갇혀 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남자’가 빗 독촉에 시달려 자살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자’의 경제 상황은 제시된 부분에서 알 수 없다.
- ④ 농사를 지어 짜장면을 만들어 먹는 것 등으로 보아 ‘남자’는 자립자족을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여자’의 생활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⑤ ‘남자’와 ‘여자’는 고독한 삶을 살고 있지만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와인병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궁금해하는 ‘남자’의 모습이나 ‘남자’의 모습을 관찰하며 짜장면 배달을 시켜주는 ‘여자’의 모습에서 이를 알 수 있다.

02 <보기>에서는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소통의 부재, 목표 의식의 상실 등을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작품에서 ‘표류’는 삶의 목표 부재나 소통의 상실로 인해 삶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현대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3 이 작품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두 남녀가 소통하며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 사회의 고독과 소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무인도의 삶, 즉 고립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이 작품의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이다.

04 이 작품에서 화자는 ‘구자명 씨’의 고단한 삶을 바라보며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05 <우리 동네 구자명 씨>의 전반부에서는 ‘구자명 씨’의 고된 삶에 주목하지만, 후반부에 이르면 여성 전체로 화자의 시선이 확장된다. 이를 통해 <우리 동네 구자명 씨>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여성의 삶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397~399쪽

- 01 ① 02 ⑤ 03 ③ 04 ② 05 ①
 06 ④ 07 **예시 답안** 무인도에 표류한 ‘남자(김 씨)’와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여자(김 씨)’를 통해 사회로부터 고립된 현대인들의 소외 의식을 ‘표류’로 표현하였다. 08 ①
 09 ② 10 ②

01 이 작품의 화자는 느티나무를 보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의인화는 이 작품에 사용되지 않았다.
 ③ 화자는 느티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나 그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한 자기 성찰이 중심을 이루므로 화자를 객관적인 관찰자로 보기 어렵다.

④ 화자는 과거와 현재의 시점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느티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02 1연의 ‘나’는 청·장년기의 화자를, 2연의 ‘나’는 노년기의 화자를 가리킨다. 청·장년기의 화자는 과거와 달리 보지 못하는 것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연한 이치로 여긴다. 그러나 노년기의 화자는 비록 신체적으로는 늙고 제대로 분간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내면의 가치까지 바라볼 수 있어 세상을 아름답게 느낀다.

03 <보기>에서 화자는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삶을 성찰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구리거울’과 이 작품의 ‘느티나무’의 공통적인 역할은 화자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04 ㉠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의 ‘찬란한 슬픔의 봄’에도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 ① ‘바람을 탓하라’에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③ ‘산아’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한다.
 ④ ‘금빛 게으른 울음’에는 공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⑤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에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05 (가)에 따르면 ‘남자’는 짜장 라면 양념 가루를 발견한 뒤 손수 농사를 지어 짜장면을 만들어 먹으려고 한다. 짜장면은 그에게 일종의 삶의 희망이자 목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자’는 배달된 짜장면에 감동하기보다는 쉽게 먹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④ ‘여자’는 ‘남자’의 생각을 읽지 못한 채 자신의 판단으로 짜장면을 배달시켰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06 ‘남자’에게 있어 짜장면은 희망이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 위해 농사를 직접 지으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07 가장 흔한 성씨인 ‘김 씨’를 통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과 삶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류하는 상황으로 나타내었다.

채점 기준	배점
두 인물이 처한 상황을 현대 사회의 문제와 관련지어 '표류'의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조건> 중 한 가지만을 충족하여 '표류'의 의미를 서술한 경우	3점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여 '표류'의 의미를 서술하면서 잘못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1점

08 '남자'는 직접 옥수수 농사를 지어 면을 만들었고, 짜장은 짜장 라면 가루로 대신했다. 따라서 '남자'의 짜장면을 배달 짜장면과 유사하게 연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여자'는 창가를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낀다. 이는 '남자'와의 소통을 통해 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장면을 통해 소통이 단절되었던 지난날에 대한 반성을 찾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③ '여자'는 '남자'와 소통을 하면서 늘상 잠을 자던 불박이장이 비좁아 지는 것을 느낀다. 이를 통해 '여자'가 그동안 불박이장에서의 잠이 익숙할 정도로 고립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고립된 삶에 대해 조금씩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라)에서 불박이장의 문을 열고 나와 방 한복판에 자리 잡아 누우며 평온함을 느끼는 '여자'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고립과 단절된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0 '여자'는 '남자'의 모습을 관찰하며 응원한다. 이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소외된 채 표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기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개와 원숭이의 사이라는 뜻으로, 사이가 매우 나쁜 두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한다는 뜻이다.
- ④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이다.
- ⑤ 멍하니 정신을 잃는다는 뜻이다.

(2) 문학과 공동체

1 바퀴벌레는 진화 중 (김기택)

작품 감상 01

» 402~403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⑤

05 [예시 답안] 환경 오염과 이로 인한 생태계 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이 작품을 창작하였다.

01 이 작품에서 시적 대상은 '바퀴벌레'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바퀴벌레'에 대한 화자의 연민은 찾을 수 없다.

02 3연에서 화자는 미래에 대한 가정을 통해 '잘 진화된 신형 바퀴벌레'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가 더욱 심각해져 오염된 생태에 적응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환경 오염에 대해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독약', '로봇', '시멘트', '살충제'는 모두 현대 물질문명의 환경 파괴적 속성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반면 '신형 바퀴벌레'는 바퀴벌레가 환경 오염에 적응하여 진화된 존재에 해당한다.

04 ①에서는 현재 심각하게 오염된 환경을 '맑고 희고', '너무나 깨끗'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되게 표현하는 반어법을 사용하여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다. ⑤에서도 입을 잊지 않았다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잊었노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에는 역설법이, ②에는 직유법이, ③에는 도치법과 대유법이, ④에는 설의법이 쓰였다.

05 이 작품에서 '바퀴벌레'는 환경이 파괴되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진화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작가는 이러한 바퀴벌레의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나타내고자 작품을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창작 의도를 적절하게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점
창작 의도를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적지 못한 경우	3점
창작 의도를 서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1점

01 ⑤

02 ①

03 ①

04 ⑤

- 01 이 작품은 대상이 지닌 끈질긴 생명력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 사회의 환경 오염 문제를 비판하며 미래에 환경 오염이 더 심각해 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오염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1연에는 바퀴벌레의 생명력을 인식한 현재 상황이, 2연에는 과거 바퀴벌레가 어떻게 생존해 왔는지에 관한 궁금증을, 3연에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미래의 환경 오염에 관한 우려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현재-과거-미래’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 02 ①~⑤에서 오염되기 이전 환경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어는 ‘나무’이다.

오답 풀이

- ②, ③, ④ 환경 오염이 된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시어로 ‘나무’와는 대조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⑤ 바퀴벌레의 끈질긴 생명력을 표현한 시어이다.

- 03 <바퀴벌레는 진화 중>에서는 ‘바퀴벌레’를, <붉은 꽃, 흰 꽃>에서는 ‘프엉 씨와 그녀의 딸’을 제재로 삼아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프엉’은 ‘포인시아나’라는 붉은 꽃을 베트남에서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며, ‘설화’ 역시 ‘눈꽃’의 한자어이다. 이를 고려할 때 두 작품에는 모두 자연적 소재가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반어적 표현은 <바퀴벌레는 진화 중>에서만 드러난다.
③ <바퀴벌레는 진화 중>에서만 금속성을 바탕으로 한 차가움, 즉 축약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04 ‘꽃’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이 작품의 화자는 프엉 씨와 그녀의 딸 설화를 꽃으로 표현하며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박완서)

작품 감상 02

409~415쪽

- 01 ② 02 예시 답안 표면적인 의미는 ‘오목’이의 다섯 아이들의 양육 문제이고, 이면적인 의미는 ‘오목’이에게 어떻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03 ②

- 04 ③ 05 수지는 속으로 06 ⑤

- 07 예시 답안 ‘수지’의 이기심으로 버림받았던 사실을 모른 채, 오히려 ‘수지’를 미워했다고 고백하며 미안해하는 ‘오목’이의 모습은 허위의식으로 가득 찬 중산층의 이기적인 면모를 더욱 강하게 비판하는 효과를 준다. 08 ② 09 ④ 10 ①
11 ⑤ 12 ④ 13 ⑤ 14 예시 답안 ‘수지’는 ‘오목’이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고, 자신의 삶을 참회하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었다.

- 01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중산층의 허위의식 및 속물적인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갈등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6·25 전쟁을 배경으로 ‘수지’와 ‘오목’이가 헤어졌다.
④, ⑤ 물질 앞에서 무너진 공동체 의식, 가족의 붕괴와 이기심 등 근대화 과정에서의 가치관 혼란을 그리며 중산층을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 02 ‘수지’ 혼자서 지닌 ‘크나큰 근심’은 ‘오목’이와 관련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죽음을 앞둔 ‘오목’이를 위해 그녀의 아이들을 대신 키우는 문제이고 이면적으로는 ‘오목’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모두 적절하게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점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으나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3점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 중 하나만 서술하면서 내용도 미흡한 경우	1점

- 03 ‘수지’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자 한다.

- 04 ㉠, ㉡, ㉢, ㉣은 모두 위선적인 중산층의 모습과 관련된 것이고, ㉤은 피란 때의 죄의식으로 허기를 느낀 ‘수지’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음식에 해당한다.

05 ‘수지’는 ‘오목’이의 아이들 양육 문제를 ‘수철’과 논의하려고 파티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1951년의 겨울’을 잇은 ‘수철’과 속물적인 ‘영란’의 모습을 보며 ‘수지’는 점차 중산층의 삶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오목’이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녀의 아이를 자신이 모두 키우기로 한다. (라)에서 아이들을 치마폭과 품속으로 껴안는 것은 아이들을 마음속으로 품겠다는 ‘수지’의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06 잘못을 일찍 고백하지 못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지’이다. ‘수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오목’이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오목’이에게 사과를 듣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스스로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07 어릴 적 ‘수지’로 인해 버림받고 힘든 나날을 보낸 ‘오목’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그간 ‘수지’를 위선적으로 생각하여 미워했었다고 고백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수지’로 대표되는 중산층의 이기심과 가식적인 모습은 더욱 부정적으로 다가온다.

채점 기준	배점
‘오목’이의 고백이 주는 효과를 중산층의 부정적인 모습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오목’이의 고백이 주는 효과를 서술하였으나 중산층의 부정적인 모습과 관련이 먼 내용이 있는 경우	3점
‘오목’이의 고백이 주는 효과를 중산층의 부정적인 모습과 관련짓지 않고 서술한 경우	1점

08 ‘수지’와 ‘수철’은 동생을 버린 과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쉽게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며 잊고 살아간다. 이러한 중산층의 위선적인 모습과 허위의식은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과 이산가족의 발생이라는 표면적 사건에 더하여 작품의 이면적 주제로 확대되고 있다.

09 ‘수지’는 ‘오목’이에게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게 된다. ‘수지’는 이렇게 변화한 자신의 모습에 기뻐하고 ‘오목’이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과거 자신과 ‘수철’이 ‘오목’이를 몰래 도왔던 것은 ‘오목’이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마음의 위안만을 얻고자 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수지’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내면과 외면이 같다는 것은 가식이나 허위의식에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10 병이 악화된 ‘오목’이는 주사로 죽음을 유예하고 있지만, 해맑은 표정이나 고요하고 무심한 목소리를 통해 죽음을 앞둔 자신의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수지’는 ‘오목’이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

12 이 작품에서 ‘은표주박’은 ‘수지’가 ‘오목’이를 버리는 데 사용한 것(③)으로, ‘오목’이에게는 불행의 씨앗이 되는 존재(①)이자 동시에 그녀가 평생 지니게 되면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존재(②)에 해당한다. 또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오목’이가 ‘수지’에게 은표주박을 건네고 ‘수지’가 진심으로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 은표주박은 ‘수지’의 참회(⑤)를 나타냄을 이해할 수 있다.

13 이 작품의 제목에 나타나는 ‘겨울’은 ‘수지’가 ‘오목’이를 버린 과거의 상황과 ‘오목’이에게 용서를 구한 현재 상황의 계절적 배경에 해당한다. 이기적이고 비정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수지’의 진심 어린 참회로 가족으로서 두 사람 간의 정이 다시 회복되는데, 이를 ‘따뜻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14 자신이 ‘오목’이를 버리기 위해 사용했던 은표주박을 건네받자, ‘수지’는 ‘오목’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더욱더 크게 느꼈을 것이다. 이에 자신의 삶을 참회하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수지’가 무릎을 꿇은 이유를 ‘수지’의 심리를 포함하여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수지’가 무릎을 꿇은 이유를 ‘수지’의 심리를 포함하여 서술하였으나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3점
‘수지’가 무릎을 꿇은 이유를 ‘수지’의 심리를 포함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1점

활동 연구 문제

» 416~417쪽

01 ③

02 ⑤

03 ⑤

01 ‘수지’는 ‘오목’이가 가난과 남편의 폭력 속에 살고 있음을 알고서 죄책감을 느낀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빗을 털고자 ‘오목’이의 남편인 ‘일환’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지만, 이를 계기로 모든 죄책감을 털어 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02 ‘수지’에게 은표주박은 ‘오목’이의 손을 일부 놓았던, 과거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으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03 ‘수지’와 달리 ‘수철’은 과거의 잘못을 모두 외면하며 계속해서 중산층의 허위의식 속에 매몰되어 살아간다.

소단원 평가 문제 420~422쪽

-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예시 답안** 환경이 파괴된 현실을 우려하며 그 심각성을 전달하고자 한다. 06 ③ 07 ④ 08 ③
 09 **예시 답안** 작가는 전쟁 이후 중산층으로 발돋움한 이들이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잊고 물질적 풍요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허위의식, 이기심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10 ⑤
 11 ③ 12 ④

01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바퀴벌레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의 정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다.

02 (나)는 과거 바퀴벌레가 환경 오염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는 신형 바퀴벌레의 출현을 예견하며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④ (가)는 현재 시점, (나)는 과거 시점에서 서술했다.

03 이 작품에서 ‘흙’은 ‘시멘트’나 ‘집’이 되기 이전에 존재하던 것으로, 오염되기 이전의 환경을 의미한다.

04 ‘신형 바퀴벌레’는 환경 오염에 적응하여 진화를 거듭하는 생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05 이 작품은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미래에는 더 극심하게 환경 파괴가 이루어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가을 들판을 묘사하다가 ‘메뚜기’가 없음을 언급하며 ‘생명의 황금 고리가 끊어진 상황, 즉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화자의 태도를 포함하여 두 작품에서 전하려는 바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화자의 태도를 포함하여 두 작품에서 전하려는 바를 서술하였으나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3점
화자의 태도를 포함하지 않고 두 작품에서 전하려는 바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점

06 이 작품은 ‘수지’의 심리 묘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과거 잘못에 대한 죄책감, 중산층으로서 허위의식, 속물적인 삶에 대한 회의, 동생을 향한 참회 등 ‘수지’의 심리가 섬세하게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④ 인물의 체험에 대한 진술은 있으나, 이를 삽화(에피소드)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07 1951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근심하는 ‘수지’와 달리, ‘수철’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과거를 외면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08 (나)에서 ‘수지’는 겉모습은 점잖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목’이를 버렸던 과거의 일을 잊고 속물적으로 살아가는 ‘수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을 의미하는 ‘표리부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교연영색’은 ‘아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를, ‘침소봉대’는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의 일을 혼자서 근심하고 있는 ‘수지’의 모습과 모두 거리가 멀다.

④ ‘부화뇌동’은 ‘쫓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을 뜻하는 말로, 파티에 참석한 이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⑤ ‘구밀복검’은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로, 파티에 참석한 이들을 관찰하며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수지’의 태도를 나타내

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 09 <보기>에 따르면, 작가는 작품을 통해 전쟁과 경제 성장 이후 나타난 ‘풍요의 비극’, 안정과 풍요로 인한 ‘이기심과 배타성’을 비판하고자 했다.
- 10 ‘수지’는 ‘영란’의 속물적이고 가식적인 태도를 보고 ‘오목’이의 아이들 양육 문제에 관해 논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영란’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은 ‘최악의 모독’이라고 여긴다.
- 11 ‘영란’은 갈비를 뜯고 있는 ‘수지’를 보며 창피함을 느낀다.
- 오답 풀이**
- ⑤ ‘흰머리’는 허위의식에 빠진 중산층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로, 파티에서 술에 취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비틀거리며 달려간다. 이로 보아 정돈되지 않은 모습으로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 12 ㉠은 <보기>의 ‘이상한 허기’와 연결되는 것으로, 과거의 잘못을 책임지고자 하는 ‘수지’의 의지가 드러난다.

대단원 평가 문제 427~432쪽

01 ③ 02 ② 03 ⑤ 04 **예시 답안** 우물, 화자의 성찰과 깨달음을 유도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05 ⑤

06 ② 07 ⑤ 08 ③ 09 ⑤ 10 ③

11 ⑤ 12 **예시 답안** ‘남자’는 삶의 희망이던 짜장면을 완성하여 먹게 되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13 ③

14 ① 15 **예시 답안** <바퀴벌레는 진화 중>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였지만, <산성 눈 내리네>는 의인법을 중심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바퀴벌레는 진화 중>은 산문의 형태의 줄글로 연을 구성하였지만, <산성 눈 내리네>는 비교적 짧은 문장 형태로 연을 구성하였다.

16 **예시 답안** <바퀴벌레는 진화 중>은 현대 물질문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작품이고, <산성 눈 내리네>는 발전을 중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에 대해 비판하는 작품이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 01 (가)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느티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 있지만, (나)에는 ‘바퀴벌레’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큰 변화 없이 나타나고 있다.

- 02 화자가 느티나무를 다시 크게 느낀 것은 느티나무의 변화가 아닌 화자의 인식 변화 때문이다. 느티나무는 여전히 같은 곳에 그대로 있지만, 화자는 늙고 병들었으며 세상을 인식하는 폭이 넓어져서 느티나무를 달리 느꼈다.

- 03 (가)에서 느티나무는 시간이 흘러도 고향집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느티나무를 통해 화자는 삶의 흐름과 변화, 세상에 대한 인식 등과 관련해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04 (가)에서 화자는 느티나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깨달음을 얻고 있다. <보기>에서 화자는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느티나무’와 <보기>의 ‘우물’은 모두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가)의 ‘느티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를 <보기>에서 바르게 찾고, 그 기능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가)의 ‘느티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를 <보기>에서 바르게 찾았으나, 기능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3점
(가)의 ‘느티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를 <보기>에서 잘못 찾았으며, 기능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점

- 05 <보기>의 ‘멸치’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였지만 점차 햇볕에 말라가고 굳어지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멸치’가 끝까지 생명력을 잃지 않는 존재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③ (나)에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바퀴벌레’에 환경 오염에 견디는 존재라는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여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멸치’에게 생명력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여 역동적 생명력 회복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나)의 ‘바퀴벌레’와 <보기>의 ‘멸치’는 모두 사람들에게 익숙한 대상이다.
- ④ <보기>에서 반생명력을 상징하는 소재는 ‘그물’이다.

- 06 이 작품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쓴 각본인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07 이 작품은 삶의 끝에서 무인도인 밤섬으로 표류한 ‘남자’와 자신의 방 안에서 고립되어 사회에서 표류한 ‘여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남자’는 밤섬에 적응하며 살기도 하지만 결국 무인도에서 다시 나오게 되므로 제대로 된 ‘정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08 이 작품은 소통의 부재로 인한 소외 의식, 고립감 등을 담고 있다. ③의 작품에서도 인간들이 조화롭게 섞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현대 사회의 소외와 고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체적인 삶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② 절망적이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발견하는 삶의 아름다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④ 새로운 사랑이나 가치, 사고를 얻기 위해서는 오래되고 묵은 사랑, 가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⑤ 물질문명의 발달로 파괴되는 자연에 대한 향수를 이야기하고 있다.

09 ‘여자’는 ‘배달원’을 통해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짜장면을 다시 돌려보낸 ‘남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10 ‘남자’는 밤섬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삶의 목표가 생기면서 도시와 소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휴대 전화를 잠동사니가 쌓인 곳에 처박아 두었다. 그러나 ‘여자’와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자 휴대 전화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로 보아 ‘남자’가 도시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이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11 <보기>는 [A]를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바꾸어 서술한 것으로, ‘남자’의 심리를 보다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게 되었다.

12 삶의 벼랑 끝에 몰렸던 ‘남자’는 밤섬에 표류하여 야생의 삶을 산다. 이런 그에게 짜장면은 삶의 희망이자 목표와 같은 존재였다. 따라서 오랜 시간을 들여 짜장면을 완성하고 이를 먹게 되었을 때는 크게 감격하였을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짜장면의 의미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린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짜장면의 의미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린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3점
짜장면의 의미를 언급하지 않고 눈물을 흘린 이유만 서술한 경우	1점

13 이 작품은 전쟁 상황에 저지른 잘못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수지’와 ‘수철’, 그리고 체면을 중시하는 ‘영란’ 등을 통해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14 작가의 전쟁 체험이 작품 속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①은 표현론적 관점에서 감상한 것이다.

15 수행 평가 풀이 | 난이도 ★★★ |

평가 요소 문학의 생활화, 문화 발전

채점 기준	배점
두 작품의 형식상 특징을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8점
두 작품의 형식상 특징을 서술하였으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4점
두 작품의 형식상 특징을 서술하였으나 <조건> 중 둘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점

16 수행 평가 풀이 | 난이도 ★★★ |

평가 요소 문학의 생활화, 문화 발전

채점 기준	배점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8점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서술하였으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4점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미흡하게 서술하면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점